



「한국인의 행복 측정」 기반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한국인의 행복 측정」 기반 연구



연구진

내부 연구진

이채정 부연구위원(공동연구책임자)

허종호 부연구위원(공동연구책임자)

민보경 부연구위원

외부 연구진

서은국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사단법인 한국삶의질학회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이화령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최민영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홍민성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 ◆ 본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과 연세대학교(연구책임자: 서은국 교수) 연구진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 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발 | 간 | 사


전 세계가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경제성을 최고가치로 삼고 물질적 부를 제1의 목표로 추구했던 개발성장의 시대가 가져온 기후재앙, 불평등 심화 등의 부작용과 반성을 바탕으로 공정, 평화, 정의로운 사회와 행복한 삶과 같은 질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시대로 전 세계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심리적 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좋은 사회와 양질의 삶의 중요 요소인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이라는 객관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이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낮은 사회적·심리적 자본과 더불어 여러 측면에서의 심화 되어가는 불평등이 주된 원인일 것으로 짐작하고 있으나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한 심층연구와 기초자료는 희박한 실정입니다.

행복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으로 인해 그간 행정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본격적인 행복 관련 데이터를 생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은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국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하여 2018년에 수행한 “한국 삶의질 조사 기반연구”(2018)에 이어 2019년 “한국인의 행복측정 기반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본원 허종호 부연구위원을 총괄로 하여, 이채정 부연구위원, 민보경 부연구위원과 함께 연세대학교 서은국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진 및 한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참여하였습니다. 행복 관련 설문 문항 개발과 데이터 생산과 관련하여 통계개발원 이희길 서기관 및 심수진 사무관이 자문으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지난 2년 간의 행복지표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행복 관련 국가대표성을 갖춘 양질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생산하고자 합니다.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뜻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국회의 입장에서 국민의 행복 수준은 현 사회의 수준과 위치를 알려주는 지표이자 국가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올 시대에 국회미래연구원이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연구 촉진과 국회의 입법성과 향상을 위한 명실상부한 행복연구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12월
국회미래연구원장 박진 (朴進)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선행연구와의 관계	4
제3절 연구의 목적	6
제2장 행복의 개념과 측정 필요성	7
제1절 행복의 개념과 특징	9
1. 행복의 개념: 주관적 안녕감	9
2. 행복: 개인 및 사회 번영의 초석	14
제2절 심도 있는 행복 측정의 필요성	21
1. 행복 측정의 정책적 필요성	21
2. 한국인의 낮은 행복 결정요인: 사회적 부의 결핍	22
제3장 기존 행복 측정 현황	27
제1절 해외 행복 관련 측정 도구, 조사, 관련 보고서	29
1. 해외 행복 관련 측정 도구	29
2. 행복 측정을 포함한 해외 조사	36
3. 대표적 행복 보고서	45
제2절 국내의 행복 측정	48
1. 행복 측정 조사: 주관적 웰빙	48
2. 행복 측정을 포함한 국내 패널 조사	50

목 차

제3절 행복 측정의 국제적 표준: OECD 주관적 안녕감 측정 가이드라인 ..	53
1. 개괄	53
2. 주요 권고 사항	53
제4장 한국인의 행복 측정 조사 설계	57
제1절 조사 목적 및 개요	59
제2절 조사 설계	60
제3절 조사 항목	62
참고 문헌	87
1. 문헌 자료	89
2. 웹 사이트	96

[표 2-1] 행복 수준을 증진/저해하는 사회적 개념들과 그 예시	24
[표 3-1] EU 삶의 질 지수 행복 측정 문항	32
[표 3-2] Findicator의 주관적 웰빙 측정 문항	36
[표 3-3] 갤럽세계조사의 행복 측정 문항	37
[표 3-4] 세계가치관조사 행복 측정 문항	38
[표 3-5] 유럽사회조사 행복 측정 문항	39
[표 3-6] 영국 연례인구조사 행복 측정 문항	40
[표 3-7] 캐나다 종합사회조사 행복 측정 문항	41
[표 3-8] 일본 삶의 질 조사 행복 측정 문항	42
[표 3-9] 국가 단위 주관적 안녕감 측정 계획 및 지표 세트	43
[표 3-10] OECD How's Life 영역 및 지표	47
[표 3-11]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주관적 웰빙(주관적 안녕감) 측정 항목 및 문항	49
[표 3-12] 국내 행복 측정 현황	51
[표 4-1] 「한국인의 행복 측정」 문항 구성	66
[표 4-2] 「한국인의 행복 측정」 문항별 출처	67
[표 4-3] 「한국인의 행복 측정」 문항 모듈 구성 예시	68

그림 목 차

[그림 2-1] 주관적 안녕감과 행복을 다룬 논문 출판의 증가 추이	10
[그림 2-2] 국가별 GDP와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12
[그림 2-3] 긍정 정서 수준에 따른 생존 비율	15
[그림 2-4] 국가의 행복 및 객관적 사회 측정치가 정부의 투표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	17
[그림 2-5] 2000~2010년 간 미국 내 지역별 인구 증가율과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	18
[그림 2-6] 삶의 만족도와 둘째 자녀 출산 가능성	19
[그림 2-7] 브렉시트(BREXIT) 선거 이전 10년간 영국 GDP와 삶의 만족도 평가 추이 ..	20
[그림 2-8] OECD 국가별 사회적 지지 수준	25
[그림 3-1] OECD 웰빙 프레임워크	30
[그림 3-2] 유럽통계청(Eurostat)의 8+1 삶의 질 차원 프레임워크	31
[그림 3-3] 네덜란드 삶의 질 지수(Life Situation Index) 프레임워크	33
[그림 3-4] 최근 5년간 영국 내 각 지역의 삶 만족도 증가율(2013.03-2019.03)	35
[그림 3-5] 일본의 삶의 질 조사(Japan Quality of Life Survey) 프레임워크	41
[그림 3-6] OECD BLI의 개념적 프레임	47
[그림 3-7] 국민 삶의 질 지표 기본 틀	48
[그림 3-8] 국회미래연구원(2018) 삶의 질 측정 프레임	50
[그림 4-1] 「한국인의 행복 측정」 측정 프레임	62
[그림 4-2] 단축형 행복 척도	64

요 약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 ‘행복’의 정책적 중요성 제고
 - 주관적으로 보고하는 행복의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고유한 예측력에 주목함. 이는 기존 사회경제 지표와 구분됨.
 - 아직 국민의 행복 수준을 추적하고 정책적 효용을 분석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한국인 행복 측정 도구가 개발되지 않은 실정임.
- 한국인의 낮은 행복감: 실태 진단 필요성
 - 높은 수준의 삶의 질에 비해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이는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이 시급함.

1.2 기존 연구와의 관계

- ‘한국 삶의 질 조사 기반 연구(2018)’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 기존 삶의 질 조사는 객관적 삶의 질 지표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체계적 측정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의 삶의 질 측정과의 차이점
 - 주관적 안녕감 측정은 일종의 심리 측정으로, 내면의 잠재적(latent) 심리 상태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조사와 달리 통계적 검증이 선행된 문항들을 선별해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 측정이 필요함.

1.3 연구의 목적

- **국제 비교 가능하며, 한국 특수성을 반영하는 행복 측정 도구 개발**
 - 국제 표준화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측정 도구 개발을 통해, 세계 속의 한국인의 행복 위치를 확인함과 동시에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함.
- **한국인의 행복 관련 변인들에 대한 포괄적 탐색**
 - 사회경제적 지표에 비해 낮은 한국의 행복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서 국가 행복의 결정적 요인인 '사회적 부(social wealth)'에 대한 심도 있는 측정과 탐색 필요. 각 개인이 한국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시각과 그들의 일상의 사회적 경험들을 측정하여 행복과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2 행복의 개념과 측정 필요성

2.1 행복에 대한 개념과 특징

1) 행복의 개념: 주관적 안녕감

- **주관적 안녕감: 행복 측정의 시작**
 - Ed Diener의 '주관적 안녕감' 개념은 행복의 과학적인 측정을 가능하게 하여 현재 행복이 학술적 및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됨.
- **주관적 안녕감의 개념적 구성**
 - 주관적 안녕감은 높은 삶의 만족감, 빈번한 긍정 정서, 낮은 빈도의 부정 정서를 핵심으로 하는 개념이며, 이외 유데모니아 안녕감 같은 관련 변인을 함께 측정하기도 함.
- **주관적 안녕감 측정의 국가적 필요성**
 - 행복은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국가의 부와 같은 객관적 사회 지표는 행복 수준과 비교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행복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행복 측정을 위해 OECD 등 각 국가 및 국제기구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국가적 수준에서의 체계적 행복 측정이 아직 미비한 상태.

2) 행복: 개인 및 사회 변영의 초석

● 개인 및 사회적 변영

- 행복 수준이 높은 개인은 더 건강하고 장수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입도 더 높고, 학업 및 직업적으로도 더 많이 성취하는 경향이 나타남.
- 높은 행복은 높은 친사회적 행동, 정치 참여, 인구 증가율, 결혼 및 출산율도 예측 가능함.

● 행복의 사회 현상 예측

- 국가의 행복 변화 추이는 경제 수치와 같은 객관적 지표가 예측할 수 없었던 중요한 사회적 현상들(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2016년 대통령 선거 결과 등)을 예측함.

2.2 심도 있는 행복 측정의 필요성

1) 행복 측정의 정책적 필요성

● 국제적 단위의 행복 측정 필요성 대두

- 행복 측정은 이제 국가 및 국제기구의 필수적인 측정치이자, 국가 정책 입안 및 그 효과를 검증하는 중요 지표로 여겨짐.
- 국민들의 행복에 대한 자기 보고는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 측정치로서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조건, 사회 현상 등에 대한 좋은 예측치로 활용함.

2) 한국인의 낮은 행복 진단: 사회적 부의 결핍

● 물질적 부에 치중된 한국 사회 발전

- 한국은 물질적 부에 치중해 성장한 국가로서,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더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영역의 부는 간과함. 이 영역에 대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체계적 진단과 측정이 필요함.

- 사회적 부(social wealth)와 행복

- 양질의 사회적 관계 및 자본은 행복의 강력한 선행 변인 중 하나로, 객관적 경제 수준이 낮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행복 수준을 유지하는 결정적 원인임.
- 낮은 사회적 신뢰는 구성원의 행복 수준을 저해하는 대표적 사회적 요인임.
- 국제 사회에서 사회적 부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 한국의 낮은 사회적 부(social wealth)

- 현재 한국인의 낮은 행복은 낮은 물질적 부보다 낮은 사회적 부에서 기인함.
- 구체적으로, 낮은 사회적 신뢰, 사회적 지지, 자율감, 높은 부패 인식, 과도한 사회 비교, 상호 배타적이고 경쟁적인 행복관과 물질주의적 사고를 보이며, 이러한 사회심리적 변인들이 구성원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이 필요함.

3 기존 행복 측정 현황

3.1 국제적 행복 측정과 보고서

1) 대표적 국제 지표

- 경제협력개발기구 더 나은 삶 지수(OECD Better Life Index; BLI)
 - OECD의 국제 비교 가능한 11개 영역의 웰빙 측정치로, 주관적 및 객관적 지표를 모두 포함함. 2011년 이래 OECD 회원국 중심으로 웰빙 측정을 시행하고 있음.

2) 행복 측정을 포함한 국제 조사

- 갤럽세계조사(Gallup World Poll; GWP)
 - 갤럽의 주도하에 14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조사. 행복을 포함한 13가지 주제로 구성되며 측정치를 바탕으로 세계 행복 보고서를 출간함.

-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WVS)**

- 세계가치관 조사 연합의 주도하에 60~80개국을 대상으로 약 4~5년 주기로 실시되는 조사로, OECD 보고서 등 다양한 국제 보고서들의 기반 데이터로 사용됨.

-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

- 유럽사회조사 유럽 연구 기반시설의 주도하에 38개국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시행되는 조사로, 주관적 안녕감의 주요 동인을 함께 측정함.

- **EU 삶의 질 지수(EU Quality of Life Indicators)**

- EU 회원국의 주관적 안녕감을 수치화한 지수로 유럽통계청이 시행함. 유럽연합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2022년부터 주관적 안녕감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예정임.

3) 대표적 행복 보고서

- **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 2012년 이래 UN 산하기관인 지속 가능한 개발 네트워크의 주도로 발간되는 보고서. 전 세계 156개국의 행복 순위 및 행복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분석 결과를 매년 공개함.

-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OECD How's Life? Report)**

- 2011년 이래 OECD 통계국 주도하에 발간하는 보고서.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1개 BLI 측정치를 공개하며, 이를 통해 더 좋은 정책과 좋은 삶을 장려함. 2년 주기로 발간되며, 현재까지 4개의 보고서를 출판함.

3.2 해외 국가별 행복 측정

1) 대표적 행복 지표

- **네덜란드 삶의 질 지수(Life Situation Index; LSI)**

- 1974년 네덜란드 사회 연구소가 개발한 지수로, 웰빙을 객관적인 측정치

로 설명하고자 함. 8개의 영역, 19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됨

- 주관적 측정치를 의도적으로 제외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함

- **영국의 국가 웰빙 측정 프로그램(Measuring National Well-Being Programme)**

- 2010년 개시했으며 영국의 국가 웰빙 지표에 객관적 및 주관적 측정치를 모두 포함함.

- 총 10개 영역, 41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웰빙의 단기 및 장기적 변화를 측정하고 지역별 통계치가 함께 제공됨

- 주관적 안녕감에 해당하는 ‘개인적 웰빙(personal well-being)’ 영역이 4문항으로 구성됨

2) 행복 측정을 포함한 해외 국가 조사

- **캐나다 종합사회조사(Canadian General Social Survey)**

- 1985년 이래 캐나다 통계청 주도로 약 20,000여 명 대상으로 실시 중임

- 7개 주제의 조사로 구성되며 그 중 “Canadians at work and home” 조사에 주관적 안녕감 1문항이 포함됨.

- **영국 연례인구조사(UK Annual Population Survey)**

- 2004년 이래 영국 통계청 주도로 발표됨. 노동력 조사를 비롯한 여러 지방 조사를 결합하여 약 32만 명의 표본을 가진 조사임.

- 2011년부터 주관적 안녕감에 해당하는 4문항 추가됨.

- **일본 삶의 질 조사(Japan Quality of Life Survey)**

- 일본 경제사회연구소 주도로 2012년에 총 20,4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임.

- 삶의 질 프레임워크로서 주관적 안녕감, 사회경제적 조건, 건강, 사회적 영역을 주요 영역으로 설정함.

- **기타 해외 국가의 행복 측정 현황**

- 이외에도 독일, 벨기에, 슬로베니아,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핀란드에서 주관적 안녕감에 관심을 갖거나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018년 기준).

3.3 국내의 행복 측정

1) 행복 측정 조사: 주관적 웰빙

- 2013년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일부로 본격적 국가 단위의 행복 측정 시작함.

2) 행복 측정을 포함한 국내 패널 조사

- ‘국민 삶의 질 지표’ 측정 전후로 다양한 패널 조사에서 주관적 안녕감 문항의 일부를 포함하기 시작됨.
- 현재까지 주관적 안녕감의 측정 방법의 일관성 부족함.

3.4 행복 측정의 국제적 표준: OECD 주관적 안녕감 측정 가이드라인

1) 개괄

- 2013년, OECD는 여러 국가와 국제 조사 기관에서 시행하는 행복 측정 방안을 비교 분석하여 해당 가이드라인을 출판함.
- 측정 도구의 타당성, 방법론적 이슈, 측정 모범 사례, 보고 및 분석 방법에 대한 조언을 포괄적으로 담아 행복 측정의 국제적 기준을 제시함.

2) 주요 권고 사항

- 주관적 안녕감 측정 도구의 타당성은 학술적 근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임.
- 측정 도구의 제시 방식, 측정 시 고려할 사항, 결과 분석 시 고려사항 등 실제 측정 시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제시함.

4 한국인의 행복 측정 조사 설계

4.1 조사 목적 및 개요

-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 국민들의 전반적 행복 수준과 특정 집단별 행복 수준, 그 변화 추이를 추적할 수 있는 국제 비교가 가능하면서도 한국 특성을 반영한 검증된 행복 조사 도구 개발.
- 측정된 행복 수치에 기여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 가능하도록 구성된 타당성 있는 행복 조사 도구 개발.

- 조사의 개요

- 국민의 행복 수준 측정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심리적 변인들과의 연관성 상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통상적으로 전 국민을 모 집단으로 하고 특정 하위 집단을 고려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음.

4.2 조사 설계

- 조사 모집단 및 표본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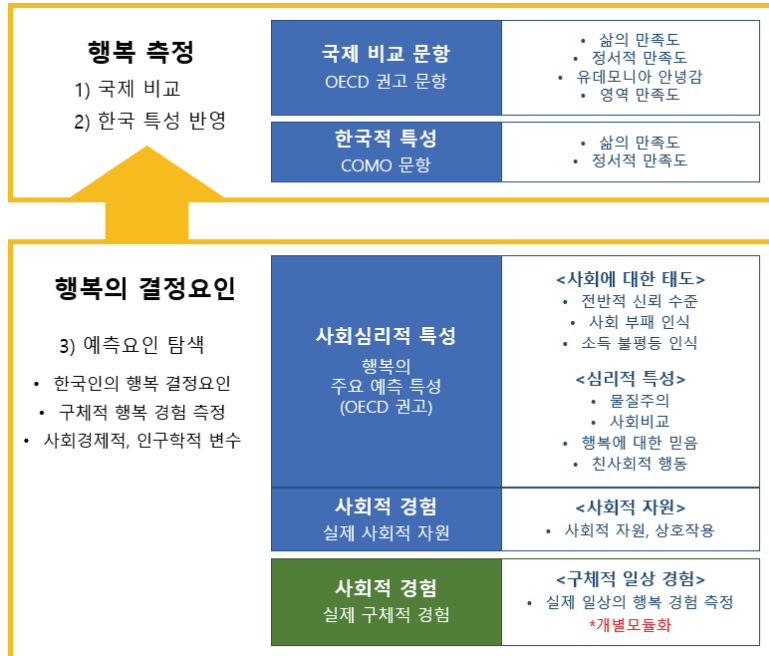
- 전국 일반 국민 19세 이상을 모집단으로 하여 조사의 대표성을 높이는 한편, 표본추출은 다단계층화 확률비례 추출을 활용. 가구 방문 면접 조사를 통해 가구 단위 조사 실시.

- 조사 방식과 조사 주기

- 심리적 상태에 대한 조사는 횡단면 조사의 비교 가능성이 매우 중요해지므로 조사 문항으로서 측정 도구 혹은 척도에 대한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조사 주기는 한국처럼 세대별, 성별 격차가 상당하고 특정 집단에서는 주목할 변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중시한다면 매년 주기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4.3 조사 항목

• 측정 프레임



• 문항 모듈 구성

- 조사 목적과 상황에 맞추어 핵심(core) 문항과 추가 선택(supplement) 문항, DRM 모듈을 적절히 조합하여 구성 가능함.

• 최종 문항 구성

영역	변수명	문항 분류별 문항 수	
		핵심	추가 선택
I. 행복 측정		35	10
국제 비교 문항 + 한국적 특성 문항			
	① 핵심 문항	5	
	② 삶의 만족도	2	7
	③ 정서	12	
	④ 유데모니아 안녕감	5	3
	⑤ 영역 만족도	11	
II. 행복 결정요인		12	12
사회심리적 특성 + 사회적 경험(실제 사회적 자원)			
1) 사회심리적 특성			
	① 전반적 신뢰	1	7
	② 물질주의	1	
	③ 행복에 대한 믿음	1	1
	④ 성격: 외향성/신경증	2	
	⑤ 사회 비교	1	
	⑥ 사회 부패 인식		2
	⑦ 소득 불평등 인식		1
	⑧ 친사회적 행동		1
2) 사회적 자원			
	① 친밀한 관계 수	1	
	② 사회적 시간 비율	2	
	③ 사회적 시간 중, 친밀한 관계 시간	2	
	④ 사회적 연결(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1	
III. 기타 변인		7	
인구사회학적 변인			
성별, 연령(생년월일), 혼인 상태, 자녀 유무(자녀 수), 소득 등		6	
IV. 개별 모듈: 일상 재구성법(DRM)		12	
사회적 경험(실제 구체적 경험)			
하루 특정 시간에 대한 상세한 보고(오전, 오후, 저녁 중 택1)		12	
총 문항		66	22
		88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선행연구와의 관계

제3절 연구의 목적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전 세계적으로 물질적 부를 넘어, 사회적·심리적 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좋은 삶과 좋은 사회의 중요 요소인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개별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수준에서도 행복을 중요 추적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Diener, 2000; Dolan and White, 2007; Stiglitz, Sen, and Fitoussi, 2009). 개인에 대한 이해를 넘어,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고되는 행복은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생산성, 이타적 행위, 정치적 행동 등)을 고유하게 예측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통계 지표의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도 비물질적 가치에 대한 측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2013년부터 객관적 삶의 조건과 주관적인 만족도를 포함하는 ‘국민 삶의 질 지표’ 측정을 시작하였고, 행복은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개념으로 독립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관적인 안녕감을 통한 행복 측정은 10여 개의 객관적 지표를 보완하는 하위 구성 지표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 단위 행복 측정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객관적 삶의 조건들을 평가하는 부분적 결과물로 행복을 측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조사·발표하는 각종 패널조사에도 최근 행복에 대한 문항을 포함했으나, 단일 항목 문항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정책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국은 현재 높은 경제적 조건 대비 행복 수준이 낮은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해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 관련 지표로서의 행복 측정치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중장기 전략의 수립을 위해서는 국민의 행복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측정과 행복의 결정요인을 탐색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의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행복 및 관련 변인을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다.

제2절

선행연구와의 관계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회미래연구원은 2018년 「한국 삶의 질 조사 기반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 연구를 포함한 기존의 삶의 질 관련 조사 연구는 삶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객관적 실태와 이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은 삶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객관적 실태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여,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내리는 인지적·정서적 평가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측정하도록 설계했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측정 도구 설계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삶의 질과 관련된 모든 항목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조사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객관적 지표들은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활용이 가능하다. 반면에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독립적 측정을 위한 별도 조사나 기존 조사를 활용한 측정치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OECD의 주관적 안녕감 측정 가이드라인이나 UN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제안하듯이 주관적 안녕감 측정에 초점을 맞춘 조사의 수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총괄 체계에서 주관적 안녕감을 별도의 관심 영역으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전문적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조사에 만족도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질문 방식과 측정 도구가 세계적 관례 및 OECD 주관적 안녕감 측정 가이드라인과 다르고,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측정 도구는 국제기구 등에서 제안하는 것과 유사하나 문항 수가 적어 포괄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국회미래연구원의 「한국 삶의 질 조사 기반 연구(2018)」가 삶의 질 전체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면, 본 연구를 통한 주관적 안녕감 측정은 삶의 질과 행복 관련 논의의 최종 관심사인 개인의 안녕감 경험을 직접 측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조사(social survey)와 심리 측정(psychological measurement)은 설문 조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한 가지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 사회조사가 현장 연구(field study)를 보다 넓은 범위의 대상에게 적용해서 공론(public opinion)과 실태

(reality)를 조사한다면, 심리 측정은 제한적인 실험(experiment)과 설문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의 내면적 심리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다. 공론의 경우 명시적이고 외면적이며 응답자가 인지하는 입장이나 의견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하듯 의견을 수집한다는 면에서 서로 소통과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측정 당시 비교적 자유롭게 문항이 수정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심리 측정의 경우 잠재적이고 내면적이며 응답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혹은 질문 상황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는 잠재적(latent) 심리 상태를 측정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동일 질문을 적용한 반복 측정을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특정 심리 측정치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질문 도구들과 측정 모형(measurement model)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는지, 이것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학술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주관적 안녕감 영역에서도 여러 측정 도구들이 개발되었으며, 그 중 신뢰도와 타당도가 충분히 검증된 삶의 만족도와 긍정 및 부정 정서 경험, 유테모니아 안녕감 측정 도구들이 OECD 주관적 안녕감 측정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다. 국제 비교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동일 질문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연구 및 지표들과 비교를 위해서도 검증된 비슷한 문항으로 구성된 다문항 척도를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주관적 안녕감 측정 조사가 현재까지는 국내에 없는 실정인바, 「한국인의 행복 측정 기반 연구」를 통하여 국제 비교가 가능한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할 수 있는 심리 측정 도구를 고안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목적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제기구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행복 조사 수치와 비교가 가능한 국제적 수준의 행복 측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검증되고 표준화된 측정 문항과 조사가 절실하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기준을 충족하면서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측정 도구 개발을 통해, 세계 속의 한국인의 행복 위치를 확인함과 동시에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행복 측정치의 정책적 효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삶의 질 측정의 하위 요인이 아닌, 독립적인 수준의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측정 도구가 필요하다. 신뢰성을 확보한 측정 도구 구성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 연관을 가진 특정 인구·통계학적 집단별 행복 수준을 살펴볼 수 있으며, 장기적인 행복 수준의 추적도 가능하다. 행복 측정에 더불어 국가나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관련 사회심리적 요인들을 함께 측정함으로써, 정책 관련 지표로서의 행복 측정치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한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객관적 경제 수준 또한 선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행복 수준이 낮은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이는 사회경제적인 지표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최근의 국제 비교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한국의 낮은 행복 수준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영역은 타인에 대한 불신과 과도한 경쟁의식과 같은 낮은 '사회적 부(social wealth)'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 부 영역에 주목하여, 한국 사회 구성원이 가지는 사회심리적 특징들과 구체적 사회적 경험들을 측정하고자 한다. 단순 행복 측정만이 아니라 관련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함으로써 국가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태도와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경제적 지표가 포착하지 못하는 국가의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결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

행복의 개념과 측정 필요성

제1절 행복의 개념과 특징

제2절 심도 있는 행복 측정의 필요성

제 1절

행복의 개념과 특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행복의 개념: 주관적 안녕감

가. 주관적 안녕감: 행복 측정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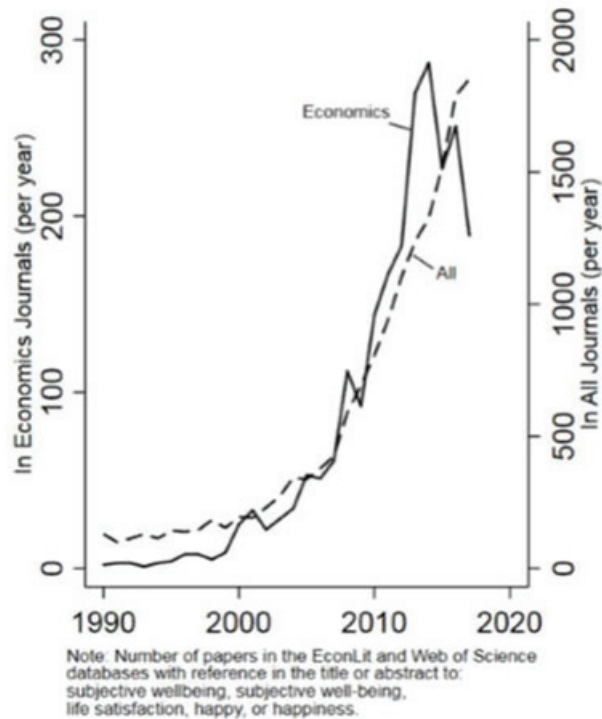
행복은 오랜 역사에 걸쳐 지속적으로 철학적 관심을 받은 개념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과학적 측정과 연구가 시작되었다. 저명한 행복 심리학자인 Ed Diener는 1984년 측정 가능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을 소개함으로써, 행복은 철학의 영역을 넘어 과학적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존 행복 연구에서 행복의 개념을 전문적 연구자가 임의로 정의하고 결정했다면, 주관적 안녕감은 행복의 최종적 내용물(행복 경험)을 당사자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은 일반인(lay people)들이 행복을 경험할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인 높은 삶에 대한 만족과 높은 빈도의 긍정 정서 경험, 낮은 빈도의 부정 정서 경험으로 구성된다. 행복감과 이 세 경험의 고리는 다양한 집단과 문화권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다. 본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통해, 행복은 측정 가능하고 경험적 연구가 가능한 개념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여, 최근 30~40년간 높은 학술적 관심이 집중됨. 최근에는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용어가 제목에 포함된 논문이 일 년에 약 1,900편 정도가 국제 학술지에 출판되고 있다(그림 2-1). 이같이 축적된 학술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최근 국제적 측정과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학문적 토대가 구축되었다.

나. 주관적 안녕감의 개념적 구성

주관적 안녕감은 높은 행복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진 세 가지 핵심적인 특성인 1)높은 삶의 만족감, 2)높은 빈도의 긍정 정서, 3)낮은 빈도의 부정 정서를 추출한 개념이다. 현재 이 주관적 안녕감의 핵심 3요소는 활발한 학술 연구뿐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측정하

는 행복의 대표적인 프레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Diener, 2000), 2013년 OECD가 출판한 주관적 안녕감 측정 가이드라인도 이 프레임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이상의 세 가지 특성과 더불어, 행복의 측정에 삶의 의미나 목표 등을 반영하는 ‘유테모니아 안녕감’ 개념을 추가적으로 측정하기도 한다.



[그림 2-1] 주관적 안녕감과 행복을 다룬 논문 출판의 증가 추이(EconLit DB 참고; OECD, 2013, p.26) 1990년대에는 행복 관련 연구가 1년에 평균 5건 이하였으나, 2008년까지 연구 건수가 약 5배 이상으로 증가

1) 삶의 만족도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인지적 평가로서, 일반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때 삶에 만족하는 정도이다.

2) 정서적 안녕감

자신의 일상 경험 전반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평가를 의미하며, 긍정 정서(즐거움 등)와 부정 정서(슬픔, 불안 등)의 상대적 경험 빈도를 정서적 안녕감으로 칭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예. 한 달) 동안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경험한 빈도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된다.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안녕감은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변별되는 특성을 가진다(Lucas, Diener, and Suh, 1996)

3) 유데모니아 안녕감

유데모니아 안녕감은 연구자마다 그 정의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심리 기능 상태, 삶의 의미, 개인적 성취와 관련된 측정치이다. 주관적 안녕감과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들은 유데모니아 안녕감도 높게 보고하는 경향(대개 .6~.8 정도의 높은 상관관계; Keyes, Shmotkin, and Ryff, 2002; Waterman, Schwartz, and Conti, 2008). OECD 주관적 안녕감 측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유데모니아 안녕감을 함께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자신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 일상에서 자유감 혹은 성취감 등을 느낀다는 내용의 문항들로 측정한다.

다. 삶의 질 개념과의 차이

삶의 질 개념은 물질적인 측면과 더불어 비물질적인 가치를 포함하는 점에서 기존의 GDP로 대표되는 사회 지표와는 차별화되어 있다. 측정 또한 주관적 및 객관적 지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나 측정 도구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물질적 조건에는 소득과 자산, 일자리와 임금, 주거, 교육, 환경, 안정 등이 포함되며 만족, 성취 등이 나머지 주관적 차원의 영역에 속한다. 이 중에서 주관적 안녕감은 주관적 차원에 포함하여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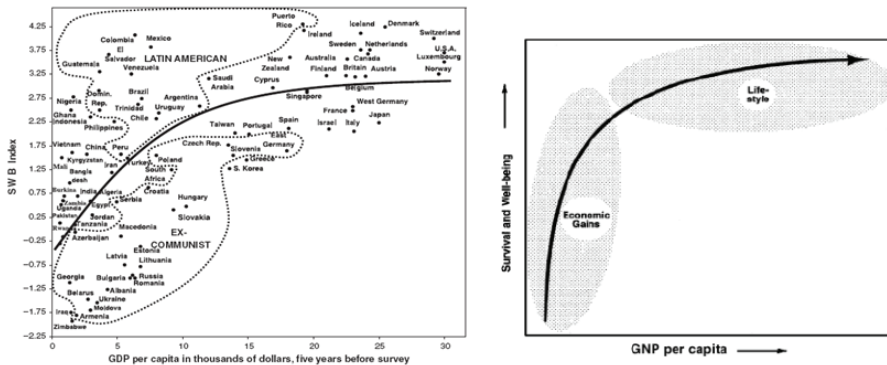
라. 주관적 안녕감 측정의 국가적 필요성

1) 행복의 주관성

행복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주관적이고 내적인 경험으로, 임의로 규정하기 힘든 개인의 주관적 판단과 평가가 행복의 필수적 요소이다(주관적 안녕감; Subjective Well-Being;

Diener, 1984). 행복은 응답자의 심리적 특성에 기반한 주관적 판단이므로, 객관적 삶의 지표들과 간극이 존재한다(Andrews and Withey, 1976). 예를 들어 소득, 주거, 직장, 건강 등 객관적 상태는 행복 수준에 대해 10% 미만의 낮은 예측력을 보임. 여러 연구에서 객관적 삶의 조건은 개인의 행복 수준과 큰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된다(Diener, Suh, Lucas, and Smith, 1999). 위와 같은 맥락에서, 국가적 부와 같은 객관적 사회 지표들만으로 국민의 행복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신흥 아시아 경제 강국(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및 구 공산 국가들(불가리아, 러시아)은 경제 수준 대비 비교적 덜 행복한 반면 중남미 대륙은 높은 행복 수준을 보인다(Oishi and Schimmack, 2010).

국가의 경제 수준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행복 증진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Easterlin's Paradox; Graham, Chatoopadhyay, and Picon, 2010). 한국과 같이 국가의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객관적 삶의 조건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지는 반면 사회심리적 변인(예. 성격, 가치관, 동기, 비교 성향, 사회적 지지 수준 등)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일관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그림 2-2; Inglehart, Foa, Peterson, and Welzel, 2008). 한국은 객관적 삶의 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복 수준이 낮은 대표적인 국가로 국가 내 행복 수준 격차도 크다(160여 개국 중 69위; World Happiness Report 2016 기준). 따라서 객관적 지표만으로는 한국인의 낮은 행복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그림 2-2] 국가별 GDP와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Inglehart et al., 2008)
GNP가 높은 국가가 될수록 비경제적 요인(가치, 라이프 스타일)이 행복과 더 큰 관련

2) 국가 단위 행복 측정의 필요성 증가

행복은 좋은 삶, 좋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이 확산함에 따라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측정 및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각 국가 단위와 국제기구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Diener, 2000; Dolan and White, 2007; Stiglitz, Sen, and Fitoussi, 2009). 특히 선진국들을 주축으로 하는 OECD는 행복 측정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행복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는 국제기구의 모범적 사례이다. 2011년 OECD는 주관적 안녕감의 측정을 포함한 Better Life Index(BLI)를 발표하였으며, 국제적 규모의 행복 수준을 다양한 사회적 지표들과의 연관성 상에서 추적하여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How's Life?' 보고서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사회 진보 및 웰빙 측정을 위한 국제적 공동 노력에 영향을 받아 여러 나라들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사회 진보 및 웰빙 관련 계획들이 진행되었다. 그 형태는 국가 컨설팅(영국), 의회 위원회(독일, 노르웨이), 국가적 라운드테이블(이태리, 스페인, 슬로베니아), 경제, 사회, 환경 조건 관련 통계의 통합 및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미국), 통계보고서(호주, 아일랜드) 등이 있었다.

한국에서도 국민의 행복 측정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2013년부터 '국민 삶의 질 지표' 측정을 시작하여, 주관적 안녕감을 독립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국내외 국가 단위의 행복 측정은 주관적 안녕감보다는 객관적 삶의 조건 평가에 더 비중을 두고 있으며, 국내의 삶의 질 조사의 경우에도 주관적 안녕감은 10여 개의 객관적 지표들을 보완하는 하위 구성 지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현재 높은 수준의 삶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낮은 대표적 국가이며,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에 대한 이해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생산성, 이타적 행위, 정치적 행동 등)을 고유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통계 지표로 기능한다. 이처럼 주관적 안녕감의 높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보다 과학적이고 심도 있는 측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 관련 지표로서의 행복 측정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 행복: 개인 및 사회 변영의 초석

행복은 단지 개인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결과치가 아니라, 개인과 사회적 변영, 나아가 복잡한 사회 현상들(예, 영국의 BREXIT)을 예측하는 강력한 정보로서 기능한다는 것이 학계와 여러 국제 자료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행복 수준이 높은 개인 및 사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바람직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예, 건강, 수명, 출산율 및 이타적인 행동 등), 이러한 ‘좋은 사회’는 단순히 경제적 풍요로 요약될 수 없다는 것이 최근의 국제적 시각이다.

행복의 측정은 국민의 행복 수준과 함께 현 사회의 위치 및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며, 국가 정책 수립 및 실시, 그 실효성의 판단과 평가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Diener, Lucas, Schimmack, and Helliwell,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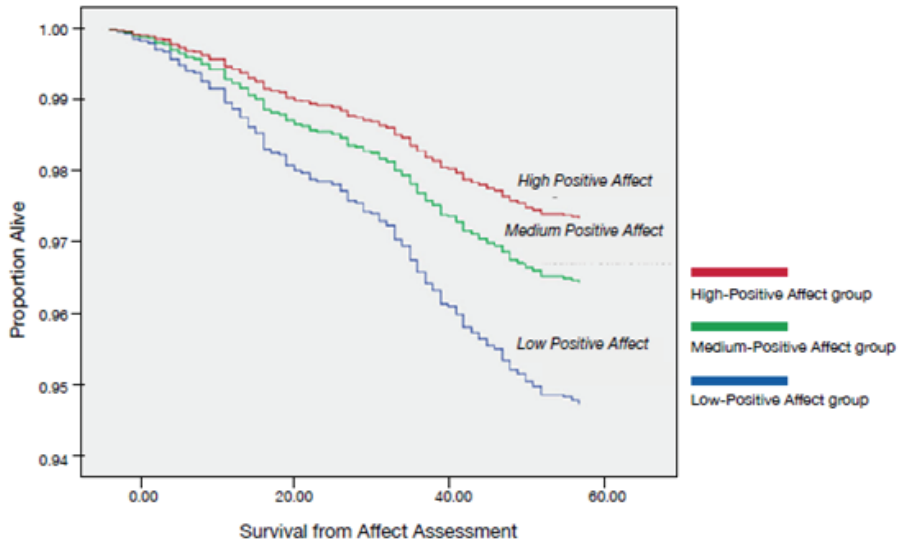
가. 행복: 개인의 변영 예측

행복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점은 단순히 심리적 안녕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객관적인 결과물과 관련된다(Diener, Oishi, and Lucas, 2015).

1) 건강 및 수명

행복 수준이 높을수록 실제로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Lyubormirsky, King, and Diener, 2005; Pressman and Cohen, 2005). 행복은 심혈관계 건강과 면역 시스템을 개선하며, 질병 회복 속도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ehm and Kubzansky, 2012; Boehm, Peterson, Kivimaki, and Kubzansky, 2011). 행복 수준과 수명의 관계에 대해 가장 잘 알려진 연구는 수녀 대상 연구로(“The nun study”), 젊은 시절 수녀가 될 때 작성한 짧은 글쓰기에 나타난 긍정 정서 수준이 가장 높았던 집단이 가장 낮았던 집단에 비해 90세에 2배 가까운 생존율을 보임으로써 행복 수준의 수명에 대한 놀라운 예측력을 보여주었다(Danner, Snowdon, and Friesen, 2001). 이런 결과는 일반 성인 집단에서도 수차례 재확인되었다(Stepptoe and Wardle, 2011; Zaninotto, Wardle, and Steptoe, 2016). 3,853명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에서는 단 하루 동안 느낀 긍정 정서가 약 5년 뒤 생존율을 예측하였으며, 기존의 건강 상태를 통제하고도 긍정 정서의 생존

을 예측 효과가 나타났다([그림 2-3]; Steptoe and Wardle, 2011).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할 때, 행복은 그 자체로 수명 증가의 원인이며 기존 건강 상태 등의 객관적 변인보다 강력한 수명 예측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2-3] 긍정 정서 수준에 따른 생존 비율(종단 연구; Steptoe and Wardle, 2011)
 긍정 정서가 높은 그룹(빨간색)이 낮은 그룹(파란색)에 비해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

2) 성취 및 소득

개인의 행복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성취물이 더 많고 좋은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yubomirsky, King, and Diener, 2005). 미국의 패널 데이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기 긍정 정서 및 삶의 만족도가 이후의 평균 수입을 예측하였으며, 이는 지능 및 부모 소득 등 객관적 변인을 통제하고도 나타난 결과이다(De Neve and Oswald, 2012).

한국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개인의 행복 수준이 직장인의 이직률과 미래 수입을 비롯한 직업 수행, 청소년의 학업 성취, 친사회적 가치관과 행동 등을 예측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구재선·서은국, 2012, 2013; 신지은 외, 2013). 예를 들어, 직장인의 높은 행복 수준은 8개월 후 높은 직장 생활 성실성, 직장성과 만족도 및 월 급여 등 긍정적인 결

과와 관련되었다(구재선·서은국, 2013). 학업 성취 면에서도 학생들의 중학교 행복 수준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과 정적 관련이 있었으나, 사교육비 및 사교육 시간, 부모 학력은 관련이 없었다(구재선·서은국, 2012). 행복은 개인의 창의성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접근 동기(approach motivation)가 수반될 때, 행복 수준이 높으면 다양한 측면에서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일관적으로 나타났다(Baas, De Dreu, and Nijstad, 2008).

나. 행복: 사회의 번영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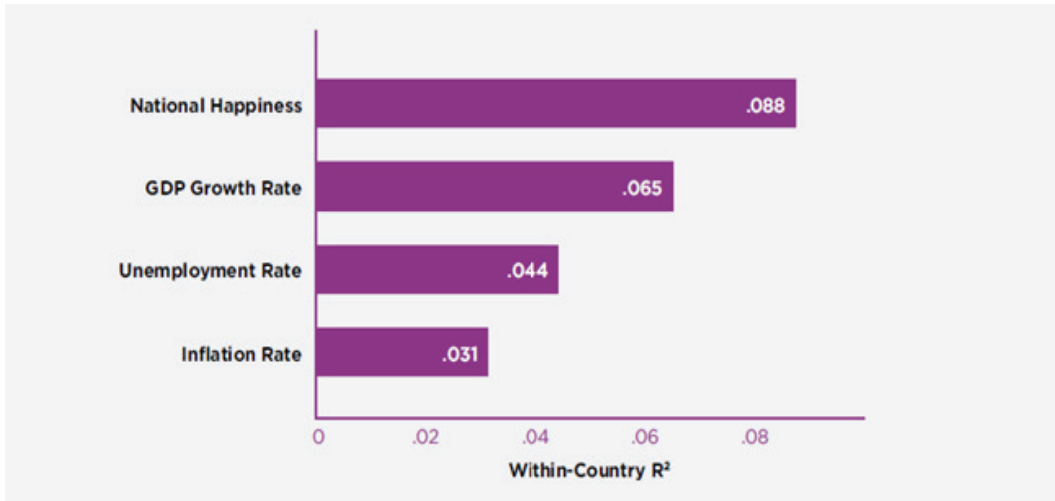
행복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구성원의 행복 수준이 그 사회를 더욱 윤택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1) 친사회적 행동

높은 행복감은 기부금, 자원봉사, 타인에 대한 신뢰, 협력 등 친사회적 행동과 견고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knin, Dunn, and Norton, 2011; Diener and Ryan, 2009; Krueger, Hicks, and McGue, 2001). 지역의 평균 행복 수준이 그 지역의 신장 이식과 같이 알지 못하는 상대에게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는 높은 수준의 이타적 행동 수준 또한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관찰되었다(Brethel-Haurwitz and March, 2014). 이러한 이타적 행동에 대해 행복은 수입을 비롯해 수입 불평등 수준, 교육 수준, 건강 등 객관적 변인을 뛰어넘는 예측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치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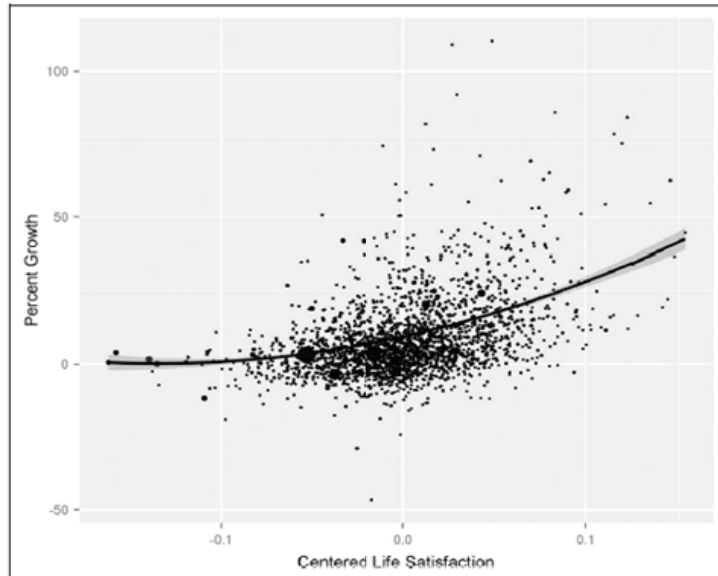
행복 수준이 높은 국가는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국가의 행복 수준은 GDP 성장률, 실업률, 물가 상승률 등에 비해 여당 투표 점유율을 더 잘 예측함으로써, 객관적 사회 통계치 이상의 강력한 예측력을 보였다(그림 2-4; Ward, 2015; World happiness report 2018 재인용).



[그림 2-4] 국가의 행복 및 객관적 사회 측정치가 여당의 투표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 (Ward, 2015; World Happiness Report 2018 재인용)
 국가의 행복 수준이 객관적 경제 지표보다 정부의 투표 점유율을 더 잘 예측

3) 인구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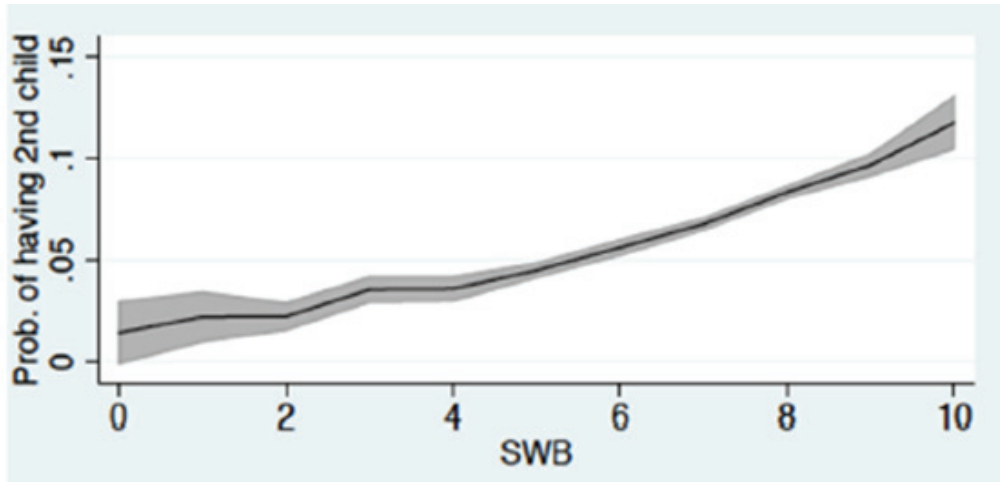
지역의 평균 행복 수준은 인구 증가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에 비해 인구 증가율이 무려 14배 차이를 보였으며([그림 2-5]; Lucas, 2014), 삶의 만족감을 묻는 단 한 문항(“In general,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life?”)만으로 인구 증가율 예측이 가능하였다. 행복 수준이 높은 지역은 심장병, 살인, 암이나 간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Lawless and Lucas, 2011).



[그림 2-5] 2000~2010년 간 미국 내 지역별 인구 증가율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Lucas, 2014)
각 점은 미국의 county를 나타내며, 점의 크기는 각 county의 인구수를 나타냄(삶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1SD)이 낮은 지역(-1SD)에 비해 14배 차이를 보임)

4) 결혼 및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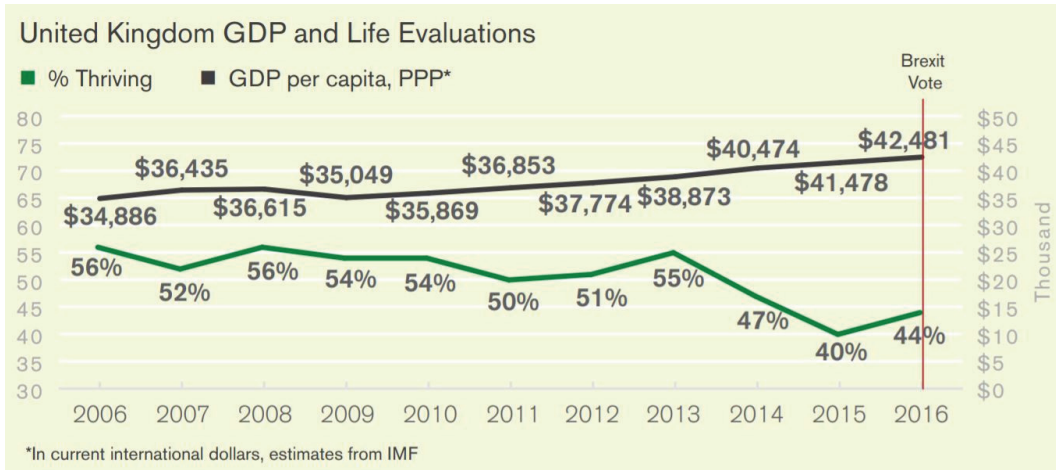
높은 행복 수준은 개인의 성생활(Blanchflower and Oswald, 2004) 예측과 더불어 결혼, 출산, 건강한 자녀를 낳을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Luhmann, Lucas, Eid, and Diener, 2013). 행복은 높은 자녀 출산 의향 및 출산율과 관련된다(Billari, 2009; Mogliea, Mencarini, Rapallinid, 2015). 행복은 남녀에게 모두 출산을 결정하는 중요 변인이었으며, 2년 뒤 출산을 예측하였다(Parr, 2010). 특히 높은 행복 수준은 둘째 자녀 출산 가능성을 높였으며([그림 2-6]; Mogliea, Mencarini, Rapallinid, 2015), 삶의 만족도 단일 문항("How satisfied do you feel with your life today?")만으로 이러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및 인구 급감 문제의 해결에 있어 행복이 근본적이고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2-6] 삶의 만족도와 둘째 자녀 출산 가능성(Moglietta, Mencarini, Rapallini, 2015)
주관적 안녕감(SWB)이 높을수록 둘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음

다. 행복: 사회 현상의 예측

최근 보고에 의하면, 국가 내의 행복 수준 변화 추이는 중요한 사회 현상에 대한 독보적인 예측치로 기능하고 있다(Gallup, 2017). 최근 갤럽(Gallup)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선거나 미국의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이례적 결과들의 경우 기존의 어떤 객관적 사회지표로도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유일하게 국가 평균 행복 수준의 추이가 이 결과를 예견했다고 보고하였다([그림 2-7]; Gallup, 2017). 2011년 발생한 아랍 폭동과 2013년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 시위 또한 국민의 삶의 만족도 평균 수준이 꾸준히 하락하는 추이를 통해 예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Gallup, 2017). 이러한 이례적인 사회 현상의 예측은 국가적 수준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만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혹은 정책 등에 대한 만족과 불만을 읽을 수 있는 독립적인 척도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 현상들은 객관적인 사회 경제 지표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보이며, 국가 수준에서 국민의 주관적 행복의 지속적인 측정과 더불어 다양한 관련 변인의 파악을 통한 결정요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2-7] 브렉시트(BREXIT) 선거 이전 10년 간 영국 GDP와 삶의 만족도 평가 추이(Gallup, 2017)

제2절

심도 있는 행복 측정의 필요성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행복 측정의 정책적 필요성

가. 국제적 단위의 행복 측정 필요성 대두

최근 행복 측정은 국가 단위 및 국제기구 단위의 필수적인 측정치로 자리 잡았다. 2013년 OECD가 발표한 주관적 안녕감 측정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과 UN의 연 단위로 이루어지는 '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2005년부터 계속된 Gallup의 세계 160여 개 국가 대상 행복 측정은 이에 대한 중요한 기준 자료가 되고 있다. 이제 행복 측정치는 개인의 행복 수준을 단순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욕구와 국가의 정책 간의 '연결고리'로서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행복 측정치를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Unted Arab Emirates)에서는 최근 정부 산하에 행복부(Ministry of State for Happiness and Wellbeing)를 신설하고, 2018년 2월 UN과 함께 세계 행복 대담(Global Dialogue for Happiness)을 공동 개최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행복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실제 행복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Ed Diener와 60여 명의 저명한 행복학자들은 이미 행복의 정기적인 측정과 추적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함을 주장하는 제안문 "Guidelines for National Indicators of Subjective Well-Being and Ill-Being"을 서명, 발표한 바 있다(Diener, 2006).

국민들의 행복에 대한 자기 보고는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 측정치로서 객관적인 사회, 경제적 조건들을 상당히 잘 예측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었다(Diener, 2000). 행복 측정치는 여타 경제적 측정치들과 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정책 실효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좋은 자료가 되며, 특정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Oishi and Diener, 2014). 예를 들어, 국가 차원의 경험 표집

(experience sampling)은 국민들이 실제 얼마나 자주 혹은 어떤 강도로 어떤 상황에서 행복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Diener, 2000). 이러한 정보는 다양한 연령 집단과 지역, 직업군에 따라 수집 가능하며, 수집된 자료는 국가 정책 입안자가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구성원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기획하는 핵심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성격의 영향력을 제외했을 때, 행복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사회적 영역으로, 국가 구성원의 사회적 영역에 대한 다차원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적 영역(낮은 상호 신뢰, 경쟁적 사회 비교 등)은 현재 한국인의 행복감 저해를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된다.

2 한국인의 낮은 행복 결정요인: 사회적 부의 결핍

가. 물질적 부에 치중된 한국

OECD의 발표에 따르면 ‘좋은 삶(better life)’은 다음의 3가지 유형의 부(wealth), 즉, 물질적(material), 사회적(social), 심리적(psychological) 부로 구성된다. 한국은 사회적 부(social wealth)보다 물질적 부(material wealth)에 치중하여 성장해왔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주거, 사회참여, 교육, 소득 등의 객관적 삶의 조건이 평균보다 높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주관적 안녕감은 30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OECD, 2017). 국가의 경제 수준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은 감소되는 반면(Easterlin’s Paradox; Graham, Chattopadhyay, and Picon, 2010), 심리적 및 사회 문화적 특성의 영향력은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부유한 국가에서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려면 자율성, 사회적 지지, 존중과 같은 탈물질적 욕구가 경제적 요인보다 훨씬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Ng and Diener, 2014). 이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이제는 물질적 영역보다 사회적 영역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 고찰이 필요하다.

나. 사회적 부(social wealth)와 행복

수십 년간의 행복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높은 행복의 핵심 결정요인은 사회적 부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부(social wealth)란 사회 전반에 대한 높은 신뢰 및 투명성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뿐만 아니라 개인이 맺는 양질의 사회적 관계까지 아우르

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한다.¹⁾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및 유대감은 행복의 강력한 선행 변인이다(Diener and Seligman, 2002). 또한, 사회적 자본은 사회의 행복 수준을 예측하며(Sarracino, 2011), 소득 수준 이상으로 국가의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jørnskov, 2003). 이뿐 아니라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시간의 양과 질도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행복은 친밀한 관계뿐 아니라 낯선 이들과의 가벼운 상호작용(예. 통근 시간의 가벼운 대화)에서도 경험되었다(Epley and Schroeder, 2014).

하지만, 가족을 제외한 타인에 대한 불신과 경쟁심 고조되면, 일상에서의 사회적 교류 기회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이는 한국이 겪고 있는 낮은 사회적 신뢰 등이 구성원의 행복 수준을 저해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 부의 결핍은 행복의 저해 요소인 물질만능주의적 사고로 이어진다. 한국의 극단적인 물질주의적 가치의 근본적 원인도 사회적 부의 결핍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인의 낮은 삶의 질 수준에 대해서는 주관적 웰빙의 전문가인 디너(Diener) 교수가 (1) 지나친 경쟁, (2) 과도한 비교, (3) 외모와 사치에 대한 집착, (4) 높은 물질주의 가치 등의 요인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국과 대조적 모습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곳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다. 행복감이 아주 높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독보적 특성은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다(Abdallah et al., 2009, 2012). 이 지역은 낮은 수준의 삶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를 포함한 각종 사회 활동의 참여, 타인과 사회 기관에 대한 신뢰, 사회적 규범 준수 및 지역사회 참여 등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자본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Morcillo and de Juan Diaz, 2016), 이는 높은 행복감의 근거가 되고 있다(World happiness report 2018의 Chapter 6. Happiness in Latin America has social foundations 참고).

사회적 부의 중요성은 이미 국제 사회에서 인식되고 있으며, 구성원에게 양질의 사회적 관계 및 자본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Helliwell, Layard, and Sachs, 2018). 구체적으로,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연결성, 신뢰, 안전의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웰빙을 도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표 2-1].

1)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학을 중심으로 사회 및 국가 단위의 신뢰, 상호호혜 등을 하위 요인으로 하는 개념으로 개인에게 부여될 수 없는 사회적 단위의 개념인 반면, 사회적 부(social wealth)는 심리학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개념으로 집단 단위의 신뢰, 상호호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친밀성과 질적, 정서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적 수준으로 환원이 가능하다. 사회적 부와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학문적이며 엄밀한 구분과 비교연구는 아직 이뤄진 바가 없다.

[표 2-1] 행복 수준을 증진·저해하는 사회적 개념들과 그 예시(World Happiness Report 2018)

사회적 개념	증진 요소	저해 요소
연결성 (Connection)	사회경제적 권한 부여, 시민 단체, 취미 활동 그룹, 스포츠, 자원봉사 활동, 가족 연대, 종교적 활동 참여 등	외로움, 편견, 시민권 박탈, 배우자 혹은 자녀 학대 등
신뢰 (Trust)	국가 기관의 투명성, 다양한 결정에 대한 대중적 참여, 자원봉사 활동 등	부패, 연고주의, 족벌주의, 부정행위 등
안전 (Safety)	재난 관련 서비스, 커뮤니티 단위 치안 유지, 효과적 응급 서비스, 안전 운전 법규 제정 및 집행, 자치 방법 등	범죄, 폭력, 사회 인프라 구축 실패

다. 한국의 낮은 사회적 부(social wealth)

사회적 부는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한국의 사회적 부의 수준과 관련 사회심리적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행복 예측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관련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신뢰 및 부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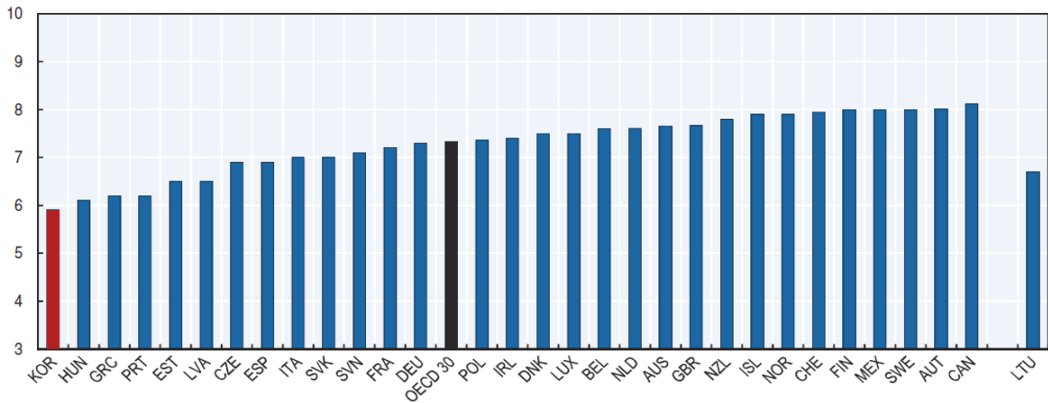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국 정부 및 타인에 대한 신뢰가 최하위권에 속하며(OECD, 2017), 부패 인식 수준은 OECD 36개국 중 30위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부패인식지수(CPI)」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2) 사회적 지지(관계)

한국은 대표적인 집단주의적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하는 비율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8; OECD, 2017). 즉, 한국인의 사회적 교류 형태는 가족과 같은 혈연과 내집단에 집중되며 일반적인 타인들에 대한 신뢰는 낮고, 교류 또한 미미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자율감

한국인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느끼고 있다. 한국인의 자율감은 156개국 중 139위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Helliwell, Layard, and Sachs, 2018).



[그림 2-8] OECD 국가별 사회적 지지 수준(OECD, 2017)

4) 사회 비교 및 행복에 대한 한정된 믿음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과도한 타인 중심적 사고가 형성되기 쉽다. 이는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 비교 경향과 행복에 대한 가치관과도 연관된다. 예를 들어 행복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믿음이나 타인의 행복은 나의 불행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이 이에 해당한다.

5) 물질주의

물질적 사고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 사회적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은 물질주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Diener et al., 2010). 물질주의적 사고는 타인과의 협력과 타협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유아독존의 사고를 만들며, 장기적으로 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신뢰를 저하시킨다. 하지만 아직까지 왜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이 외국에 비해, 또한 객관적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가에 대한 체계적인 경험적 연구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제3장

기존 행복 측정 현황

제1절 해외 행복 관련 측정 도구, 조사, 관련 보고서

제2절 국내의 행복 측정

제3절 행복 측정의 국제적 표준: OECD 주관적 안녕감 측정 가이드라인

제 1절

해외 행복 관련 측정 도구, 조사, 관련 보고서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해외 행복 관련 측정 도구

가. OECD 더 나은 삶 지수(OECD Better Life Index: BLI)

1) 개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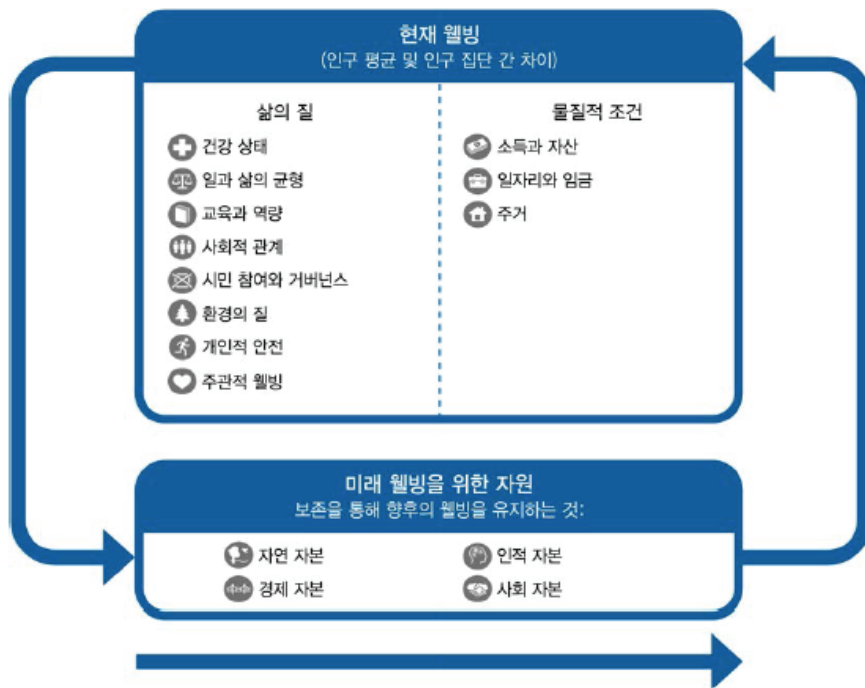
BLI는 OECD 50주년과 함께 출범한 OECD Better Life Initiative의 일환으로 공포되었다. OECD는 좋은 삶의 지표로서 GDP 및 거시 경제 통계치가 갖는 한계성을 인지하고, 10년간의 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웰빙 측정치를 발표하였다. BLI의 프레임워크는 행복과 관련하여 GDP의 한계성을 지적한 2009년 스티글리츠 보고서에 기반한다.

BLI는 2011년 5월에 발표 및 측정을 시작하였으며, 조사된 BLI 측정치는 2년 단위로 'How's Life?'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BLI 측정 대상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40여 개국으로 한정되며, BLI는 종합지수가 아닌 각 영역별 측정치로 표현된다. 각국의 BLI 수치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거나 타 국가 수치와의 비교가 가능하다.

2) 지표 체계 및 내용

주관적 및 객관적 지표가 모두 포함된 BLI는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물질적 조건에는 소득과 자산, 일자리와 임금, 주거가 포함되며 나머지 지표는 삶의 질 영역에 속한다([그림 3-1]; OECD, 2015). 구체적으로, BLI 지표는 총 11개 영역으로 주거(주거 조건 및 주거비), 소득과 자산(가구 소득과 금융자산), 일자리와 임금(근로 소득, 일자리 안정성과 실업), 사회적 관계(사회적 지지 네트워크의 질), 교육과 역량(교육과 그 효과), 환경의 질(건강한 환경),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민주주의에의 참여), 건강 상태, 주관적 안녕감(행복 수준), 개인적 안전(살인과 폭력), 일과 삶 균형으로 구성된다.

BLI의 경우, 삶의 질을 반영하는 다양한 주관적, 객관적 지표들을 현재와 미래의 시간적 프레임을 아우르며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려는 국제기구 차원의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프레임워크에서 주관적 안녕감(즉, 주관적 웰빙)의 비중은 상당히 낮다. 다른 삶의 질 측정치들과 함께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회경제적 지표들과 구분되는 주관적 안녕감의 다양한 예측력의 장점을 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림 3-1] OECD 웰빙 프레임워크(OECD, 2015)

나. EU 삶의 질 지수(EU Quality of Life Indicators)

1) 개괄

EU 회원국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수치화한 지수로서 2013년, 유럽통계청(Eurostat)의 주도로 시행하는 소득과 생활 조건에 관한 유럽 연합 통계(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의 일환으로 주관적 안녕감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수를 계산하였다. EU-SILC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유럽통계청은 ‘삶의 질: 사실과 관점(Quality of life: Facts and views)’와 ‘삶의 질 지수에 관한 전문가 최종 보고서(Final report of the expert group on quality of life indicators)’를 출간하고 있다.

2) 지표 체계 및 내용

EU-SILC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주관적 안녕감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8+1 삶의 질 차원’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주관적 안녕감을 표상하는 ‘전반적 삶의 경험(Overall experience of life)’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질 조건 8가지를 반영하였다(그림 3-2).



[그림 3-2] 유럽통계청(Eurostat)의 8+1 삶의 질 차원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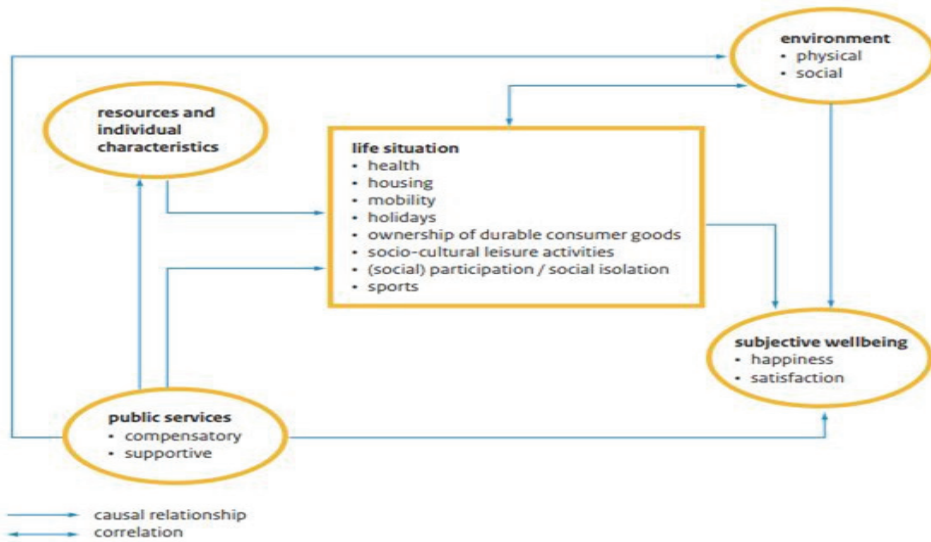
[표 3-1] EU 삶의 질 지수 행복 측정 문항

측정 개념	척도	문항
Life satisfaction	1~10 1=very dissatisfied 10=very satisfied	All things considered, how satisfied would you say you are with your life these days?
Overall happiness	1~10 1=very unhappy 10=very happy	Taking all things together on a scale of 1 to 10, how happy would you say you are?
Emotional well-being	1~6 1=at no time 6=all of the time	<p>Please indicate for each of the five statements which is closest to how you have been feeling over the last two weeks.</p> <p>[Positive emotion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 have felt cheerful and in good spirits 2) I have felt calm and relaxed. 3) I have felt active and vigorous. 4) I woke up feeling fresh and rested. 5) My daily life has been filled with things that interest me. <p>[Negative emotion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 have felt particularly tense. 2) I have felt lonely. 3) I have felt downhearted and depressed.
Eudaimonia	1~5 1=strongly disagree 5=strongly agree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 am optimistic about my future. 2) I generally feel that what I do in life is worthwhile. 3) I feel I am free to decide how to live my life. 4) In my daily life, I seldom have time to do the things I really enjoy. 5) I find it difficult to deal with important problems that come up in my life. 6) When things go wrong in my life, it generally takes me a long time to get back to normal.

다. 네덜란드 삶의 질 지수(Life Situation Index; LSI)

1) 개괄

1974년, 네덜란드 사회 연구소(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SCP)에 의해 개발된 지수로서, 네덜란드 통계청과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네덜란드 국민의 웰빙을 객관적인 측정치로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지수는 (1) 전반적인 삶의 질 설명, (2) 긍정 및 부정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 평가, (3) 시계열 변화 관찰, (4) 시간에 따른 세부 하위지표의 변화 과정 추적, (5) 더 넓은 프레임워크 안에서 삶의 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삶의 질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원, 환경, 공공서비스, 주관적 안녕감 등의 부문들이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었다(그림 3-4). 종합지수 산출이 가능하며, 시계열적 변화 관찰 및 정책적 시사점 제공에 유용한 특성을 지닌다.



[그림 3-3] 네덜란드 삶의 질 지수(Life Situation Index) 프레임워크

2) 지표 체계 및 내용

기존의 행복 측정이 주관적 인식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으로 인해 네덜란드의 경우, 상황을 평가하는 주관적인 판단과 만족의 정도는 의도적으로 제외하였다. 주관적인 판단이 제

외되어도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행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LSI는 삶의 질을 다음의 8개의 영역으로 구성했다. 건강, 주거, 이동성, 휴가, 내구성 소비재 소유, 사회 문화적 레저 활동, 사회 참여, 스포츠이며, 각 영역별 세부 항목은 총 19개로 구성되어 있다. 1970년대 이래 꾸준히 종합 지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계열적 변화를 관찰하고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각종 통계분석이 가능하다.

삶의 질을 국가 단위로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으나, 기본적으로 객관적 측정치가 행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프레임워크를 근거로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 및 만족감은 측정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였다. 그러나 객관적 상황 지표는 근본적으로 행복에 대한 설명력의 한계가 존재한다. 본 지수는 ‘행복 실현’이라는 결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개인의 행복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는 한계가 있다.

라. 영국의 국가 웰빙 측정 프로그램(Measuring National Well-Being Program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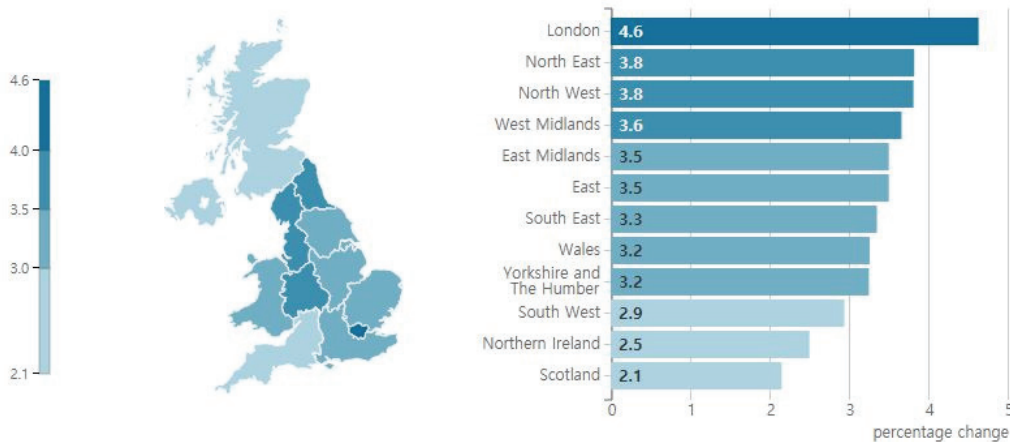
1) 개괄

2010년 11월, 영국은 국가 웰빙 측정 프로그램(Measuring National Well-being programme)을 개시하였으며, 국가 웰빙 지표에 수입, 건강 등 객관적 측정치와 개인적 웰빙 및 삶에 대한 개인의 시각 등 주관적 측정치를 포함하였다. 기존의 경제 성장 지표가 가진 정보의 한계를 인식, 주관적 안녕감의 측정을 통해 영국 국민, 공동체, 국가의 웰빙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약 1년, 5년 단위로 각 지표에 대한 단기 및 장기적 변화를 측정하고 있다. 그 결과를 영국 통계청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영국 내 각 지역별 웰빙 통계치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3-5).

기존의 네덜란드 지표와 달리 행복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며 이외에도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건강, 여가, 직업, 수입 등 다양한 영역 만족도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조사하고 있다. ‘개인적 웰빙(Personal well-being)’은 주관적 안녕감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기존의 경제 성장 지표와 함께 측정함으로써 영국 국민과 공동체, 국가의 발전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삶 만족’, ‘가치’, ‘행복’, ‘불안’ 영역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자세한 문항 내용은 다음 ‘영국 연례인구조사’ 항목 참조).

2) 지표 체계와 내용

영국의 웰빙 지표는 총 10개로, 개인적 웰빙, 사회적 관계, 건강, 일 및 여가, 주거, 개인적 재무, 경제, 교육 및 기술, 거버넌스, 환경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별 세부 지표 항목은 총 41개이다.



[그림 3-4] 최근 5년간 영국 내 각 지역의 삶 만족도 증가율(2013.03-2019.03)

마. 핀란드의 Findicator

1) 개괄

Findicator(Findikaattori)는 핀란드 통계청(Statistics Finland)과 핀란드 국무총리실(Prime Minister's Office)에 의해 2009년에 출범하였다. Findicator는 특정 범주의 웰빙 지표와 함께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는 약 100개의 지표와 함께 핀란드의 진행 상황에 대한 최신 통계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https://findikaattori.fi>).

2) 지표 체계 및 내용

8개 차원에 대한 23개의 지표가 웰빙에 해당하며 삶의 만족도로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고 있으나, 주관적 웰빙은 때에 따라 추가되는 일회성 데이터 수집 중 하나이며, 주제와

질문은 매년 달라지며 몇 년 간격으로 반복된다.

[표 3-2] Findicator의 주관적 웰빙 측정 문항

측정 개념	척도	문항
Life satisfaction	0~10 1= not at all satisfied 10= completely satisfied	Trust in Finland's political decision-making system Trust in Finland's legal system Satisfaction with household's financial situation Satisfaction with time use Satisfaction with shops, services and public transport in the living environment Life satisfaction in general Satisfaction with current job Meaningfulness of life Satisfaction with commuting time Trust in the Finnish police Satisfaction with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s Satisfaction with housing conditions

2 행복 측정을 포함한 해외 조사

가. 갤럽세계조사(Gallup World Poll)

갤럽(Gallup Organization)의 주도로 시행되는 조사로 2005년 이래로 1년에 한 번 설문 조사를 시행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약 140국가 이상에서 140,000여 명의 응답이 수집되며 한 국가 당 1,000명의 응답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행복’ 분야를 포함하여, ‘기업과 경제’, ‘시민 참여’, ‘의사소통과 기술’, ‘교육과 가족’, ‘환경과 에너지’, ‘음식과 주거지’, ‘정부와 정치’, ‘건강’, ‘법과 규칙’, ‘종교와 윤리’, ‘사회적 이슈’, ‘일’ 등의 13가지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구성되어 있다. 갤럽세계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년 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가 출간되고 있다.

[표 3-3] 갤럽세계조사의 행복 측정 문항

측정 개념	척도	문항
Life evaluation	0~10 0=the worst possible life for you 10=the best possible life for you	Please imagine a ladder with steps numbered from zero at the bottom to 10 at the top. Suppose we say that the top of the ladder represents the best possible life for you, and the bottom of the ladder represents the worst possible life for you. 1) On which step of the ladder would you say you personally feel you stand at this time? 2) On which step do you think you will stand about five years from now?
Positive experience index	Yes/No	1) Did you feel well-rested yesterday? 2) Were you treated with respect all day yesterday? 3) Did you smile or laugh a lot yesterday? 4) Did you learn or do something interesting yesterday? 5) Did you experience the following feelings during a lot of the day yesterday? - How about enjoyment?
Negative experience index	Yes/No	Did you experience the following feelings during a lot of the day yesterday? 1) How about physical pain? 2) How about worry? 3) How about sadness? 4) How about stress? 5) How about anger?

나.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세계가치관조사 연합(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의 주도로 시행되는 조사로 약 4~5년 동안 1회기의 조사를 시행하며, 1981년 이래로 현재까지 총 6회가 시행되었다. 가장 최근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6회기는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60 국가 이상으로부터 86,000여 명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현재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약 80개국 이상으로부터 7회기 조사를 시행 중이다. 7회기 조사의 경우, '사회적 가치 및 태도', '사회적 웰빙', '사회적 자본과 신뢰', '경제적 가치', '부패', '이민', '탈물질주의 지수', '과학과 기술', '종교적 가치', '안전', '윤리적 가치 및 규범', '정

치적 관심과 참여’, ‘정치적 문화와 제도’, ‘인구통계학적 변인’ 등 14개의 하위 구성 개념을 포함하여 자료를 수집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OECD How’s Life? Report) 등의 다양한 국제 보고서의 기반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표 3-4] 세계가치관조사 행복 측정 문항

측정 개념	척도	문항
Life satisfaction	1~10 1=completely dissatisfied 10=completely satisfied	All things considered,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life as a whole these days? Where would you put your satisfaction with your life as a whole?
Overall happiness	1~4 1=very happy 2=rather happy 3=not very happy 4=not at all happy	Taking all things together, would you say you are:

다.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유럽사회조사 유럽 연구 기반시설(European Social Survey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ESS ERIC)의 주도로 시행되는 조사로 2년 주기로 시행되며, 2002년 이래로 현재까지 총 9번 시행되었다. 유럽 전반에 걸쳐 총 38개 국가에서 데이터가 수집되며, 한 국가 당 최소 1,500명의 응답자를 모집하고 있다.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주관적 안녕감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6회기의 경우, 행복을 평가적 안녕감(evaluative well-being), 정서적 안녕감(emotional well-being), 기능(functioning), 지지적 관계(supportive relationships), 활력(vitality), 공동체적 안녕감(community well-being)의 6차원으로 정의하여 심층적으로 파악한 바 있다.

유럽사회조사는 주관적 안녕감의 측정에서 그치지 않고, 주관적 안녕감의 주요 동인으로 예상되는 7가지 요인(직업, 성별, 양육, 이민, 환경, 민주적 정부, 문화적 가치)을 함께 측정하여 행복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표 3-5] 유럽사회조사 행복 측정 문항

측정 개념	척도	문항
Happiness	0~10 0=extremely unhappy 10=extremely happy	Taking all things together, how happy would you say you are?
Life satisfaction	0~10 0=extremely dissatisfied 10=extremely satisfied	All things considered,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life as a whole nowadays? Please answer using this card, where 0 means extremely dissatisfied and 10 means extremely satisfied.
Emotional well-being	1~4 1=none or almost none of the time 2=some of the time 3=most of the time 4=all or almost all of the times	I will now read out a list of the ways you might have felt or behaved during the past week. Using this card, please tell me how much of the time during the past week... [Positive emotions] 1) ...you felt that everything you did was an effort? 2) ...you were happy? 3) ...you enjoyed life? [Negative emotions] 1) ...you felt depressed? 2) ...your sleep was restless? 3) ...you felt lonely? 4) ...you felt sad? 5) ...you could not get going?
Eudemonic well-being	1~5 1=agree strongly 2=agree 3=neither agree nor disagree 4=disagree 5=disagree strongly	1) I feel I am free to decide for myself how to live my life. 2) In my daily life I get very little chance to show how capable I am. 3) Most days I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from what I do. 4) I generally feel that what I do in my life is valuable and worthwhile.
	0~10 0=not at all 10=completely	To what extent do you feel that you have a sense of direction in your life?

라. 영국 연례인구조사(UK Annual Population Survey)

2004년부터 영국 통계청의 주도하에 분기별로 발표되는 인구조사이다. 본 조사는 영국의 노동력 조사(Labour Force Survey; LFS) 데이터에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지

역의 노동력 조사(Annual Local Area Labour Force Survey) 데이터를 추가로 결합한 조사이다. 약 32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분기별 발행하되 1년 치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제는 고용 및 실업, 주거, 민족, 종교, 건강,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1년 4월부터 주관적 안녕감에 해당하는 ‘개인적 웰빙(Personal well-being)’ 4문항이 본 조사에 추가되었으며[표 3-6], 본 인구조사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 도구 구성을 위한 실험적 측정이 실시되어 OECD 주관적 안녕감 측정 가이드라인에도 좋은 예시로 제시된 바 있다(OECD, 2013). 개인적 웰빙 문항들은 개인 인터뷰를 거친 16세 이상인자의 응답만이 기록되므로, 실제 가용한 표본 크기는 전체 조사 표본 수의 약 절반 정도이며, 본 연례인구조사 이외에도 영국 내 시행되는 여러 조사에 포함되어 있다.

[표 3-6] 영국 연례인구조사 행복 측정 문항

측정 개념	척도	문항
Life satisfaction	0~10 0=not at all satisfied 10=completely satisfied	Overall,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life nowadays?
Worthwhile	0~10 0=not at all worthwhile 10=completely worthwhile	Overall, to what extent do you feel the things you do in your life are worthwhile?
Happiness	0~10 0=not at all happy 10=completely happy	Overall, how happy did you feel yesterday?
Anxiety	0~10 0=not at all anxious 10=completely anxious	Overall, how anxious did you feel yesterday?

마. 캐나다 종합사회조사(Canadian General Social Survey)

1985년부터 캐나다 통계청의 주도하에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조사로서 표본 수는 1998년까지 10,000여 명, 이후 25,000명으로 증가했다가 2015년부터 22,00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약 2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본 조사는 다음의 7개 주제의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인의 일과 가정(work and home), 가족(families), 간병과 간호(caregiving and care receiving), 봉사과 사회참여(volunteering and participating), 범죄피해(victimization), 사회적 정체성과 시간 활용(so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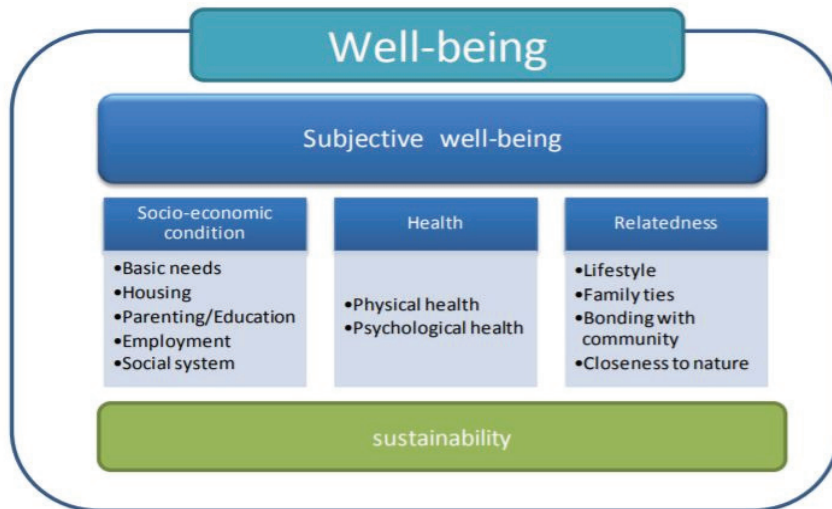
identity and time use)이다. 이 중 2016년에 시행된 “Canadians at work and home” 조사는 일, 가정, 여가 및 웰빙과 관련된 조사로서, 주관적 안녕감 1문항이 포함 되어 있다[표 3-7].

[표 3-7] 캐나다 종합사회조사 행복 측정 문항

측정 개념	척도	문항
Life satisfaction (변인명: Subjective well-being minimum)	0~10 0=very dissatisfied 10=very satisfied	How do you feel about your life as a whole right now?

바. 일본 삶의 질 조사(Japan Quality of Life Survey)

일본 내각부의 싱크탱크인 경제사회연구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가 실시한 조사로서 2012년 3월 총 20,440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조사(10,440명)와 인터넷 조사(10,000명)로 나누어 진행했다. 삶의 질 프레임워크로서 주관적 안녕감과 함께 사회경제적 조건, 건강, 사회적 관계를 중요 영역으로 설정하고,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추가하였다(그림 3-6). 정서, 삶 만족 등 주관적 안녕감 문항들과 함께 행복에 대한 태도 및 믿음, 타인의 행복 수준 등 개인의 안녕감과 관련되는 다양한 변인을 측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림 3-5] 일본의 삶의 질 조사(Japan Quality of Life Survey) 프레임워크

[표 3-8] 일본 삶의 질 조사 행복 측정 문항

측정 개념	척도	문항
Sense of happiness	0~10 0=very unhappy 10=very happy	Currently, how happy are you?
Life satisfaction	0~10 0=completely dissatisfied 10=completely satisfied	All things considered,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life as a whole these days?
Affects experienced yesterday *internet survey report	0~10 0=not experience the emotion "at all" yesterday 10=experienced the emotion "all the time" yesterday	1) Overall, how happy did you feel yesterday? 2) Overall, how contented did you feel yesterday? 3) Overall, how angry did you feel yesterday? 4) Overall, how sad did you feel yesterday?
Affects experienced during past few weeks	1~4 1=none 2=rarely 3=sometimes 4=often	In the past few weeks, how often did you have following feelings? 1. Proud 2. Calm 3. Sympathy 4. Generous 5. Peaceful 6. Kindness 7. Intimacy 8. Fulfillment 9. Satisfaction 10. Indebtedness 11. Hopeless 12. Sadness 13. Stress 14. Fear 15. Anxiety 16. Shame 17. Anger 18. Guilt 19. Ego 20. Jealous 21. Frustration

사. 기타 해외 국가의 행복 측정 현황

기타 해외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행복 측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3-9; Global Happiness Policy Report 2018에서 재인용].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교적 최근 시작했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단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표 3-9] 국가 단위 주관적 안녕감 측정 계획 및 지표 세트(The Global Happiness Council, 2018)

국가	측정 계획명	주관기관	측정 계획의 발단과 운영	주관적 안녕감 수치 포함 여부
독일	Gut Leben in Deutschland	연방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 12월 이니셔티브 독일 연방 정부는 "독일에서의 웰빙: 우리에게 중요한 것" 발족. 국가 협의 과정과 여타 국내 및 국제 연구 프로젝트 및 토론의 결과에 따라 독일의 웰빙 현황 및 동향을 기술하고 측정. 12개 차원의 46개 지표가 사용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주관적 웰빙은 미포함. 대신, 첫 보고서에 삶의 만족 촉진 요인에 대한 다양한 지표들이 언급.
벨기에	Complementary indicators to GDP	National Accounts Institu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mplementary Indicators to GDP는 연방 수준에서 개인의 웰빙과 사회적 발전 측정 목적으로 실시. 국가 회계원(National Institut des Comptes nationaux)은 이 지표 세트의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2014년에 채택된 법률에 규정. 2016년과 2017년에 출판된 보고서는 13개 테마로 분류된 67개의 지표로 구성. 세부 추세와 현세대(현재), 미래 세대와 다른 국가의 3개념 차원을 다룸. 	"Evaluation de sa propre existence"에 삶의 만족도 문항 (0~10점) 포함. * 데이터 출처: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ropean Social Survey.
슬로베니아	Indicators of Well-Being in Slovenia	Institute of Macroeconomic Analysis and Development (IMAD) Statistics Slovenia (SURS) the Slovenian Environment Agency (ARSO)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NIJZ)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웰빙 지표는 슬로베니아 정부가 2015 년에 시작한 국가 개발 전략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의 일환으로 개발. 지표 세트는 4 개 컨소시엄 - 거시경제 분석 연구소(IMAD), 슬로베니아 공화국 통계청 (SURS), 슬로베니아 환경청 (ARSO), 국립 보건원 (NIJZ)을 통해 측정. 지표 구성은 3개 분야(물질적, 사회적 및 환경적 복지)로 이루어지며, 매년 데이터를 업데이트(1996년 데이터부터 공개). 	삶의 만족도와 행복 모두 포함.

국가	측정 계획명	주관기관	측정 계획의 발단과 운영	주관적 안녕감 수치 포함 여부
에콰도르	Buen Vivir	INEC (Ecuador Statistics Off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Buen Vivir (Good Living)의 광범위한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에콰도르 통계청 (INEC)은 Buen Vivir 개념에 따라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세트 작성. 	2015년 기준 주관적 복지·번영의 여러 요소 측정 제안: 삶의 평가 (Cantril Ladder), 삶의 만족도 (0~10점),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정서적 웰빙), 영성, 유데모니아.
오스트리아	How's Austria Statistics	Statistics Aust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청은 2012년부터 물질적 부, 삶의 질, 환경 지속성의 3개 차원으로 분류한 30개 핵심 지표들에 대한 연차보고서 출판. 과거 변화 추세 탐색과 지표들 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랙티브 툴 개발. 	주관적 웰빙 포함: 삶의 만족도(0~10점). *데이터 출처: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 SILC).
이탈리아	Measures of equitable and sustainable well-being	National Council for the Economy and Labour (CNEL)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IST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탈리아 총리 소집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웰빙"("Benessere Equo e Sostenibile"; BES) 프로젝트에서 웰빙 프레임워크를 개발. ISTAT의 일련의 지표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추적 관리. 2016년 승인 법안은 예산 논의 관련 의회보고를 위해 작은 범위의 프레임워크 개발 필요성 제안. 	BES는 130개의 지표 중, 삶의 만족도, 레저시간 만족도, 미래 전망에 대한 긍정/부정 판단을 주관적 웰빙의 지표로 포함.

3 대표적 행복 보고서

가. 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1) 발간 배경 및 소개

세계 행복 보고서는 UN의 산하기관인 지속 가능한 개발 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이 매년 발간하며, 전 세계 156개국의 행복 순위 및 행복과 관련된 다양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2011년 7월 UN 총회에서 행복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되며, 행복은 인간의 기본 권리이며 국민 행복의 지표로서 GDP가 지니는 한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13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각 국가 단위의 행복 측정과 측정치의 정책 반영을 장려하고 있다. 이후 2012년 4월, “웰빙과 행복: 새로운 경제적 패러다임 정의”에 관한 UN 고위급 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첫 세계 행복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총 7개의 세계 행복 보고서가 출판되었다(단, 2014년은 미출간).

세계 행복 보고서의 156개국의 행복 순위 결과는 갤럽세계조사(Gallup World Poll)의 데이터를 사용하며, 이외에도 여러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시행되는 조사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예를 들면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Index Report), 유로바로미터 조사(Eurobarometer survey) 등을 들 수 있다.

2) 주제 및 내용

세계 행복 순위 결과와 함께 매년 선정된 핵심 주제 또는 챕터별 소주제와 관련된 여러 행복 연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보고서의 중심 주제는 행복과 이민으로, 지역 또는 국가 간 이주와 행복의 관계에 대해 다루었다. 2019년 보고서의 중심 주제는 행복과 지역사회로, 지난 수십 년간 행복의 변화 양상과 정보 통신 기술, 거버넌스, 사회적 규범이 지역사회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었다. 구체적인 챕터별 세부 주제로서 (1) 정부와 행복, (2) 친사회적 행동과 행복, (3)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나. OECD How's Life 보고서

1) 발간 배경 및 소개

‘How’s Life?’ 보고서는 OECD 통계국의 주도하에 2년 주기로 발간되는 보고서이다. BLI 지표의 기본 틀은 웰빙과 발전에 대한 측정 방안을 제시한 2009년의 스티글리츠 보고서 프레임워크에 근거를 두었다. 그 기본 방향은 GDP로 대변되는 경제성장이 아닌 대안적 발전의 모색이다. OECD가 제시한 웰빙 프레임워크인 11개 웰빙 영역과 웰빙 유지를 돕는 4가지 자원 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OECD 34개국 및 일부 신흥 경제 국가의 웰빙 수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더 좋은 정책(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을 장려하는 OECD의 “보다 나은 삶 계획(OECD Better Life Initiative)”의 일환이다. 좋은 정책 개발을 통한 더 좋은 삶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웰빙에 대한 타당한 평가와 측정지표가 필요하며, 이를 제공하는 것이 보고서의 목표임을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총 4개의 보고서가 출판되었다. 갤럽세계조사(Gallup Poll Survey) 등을 기반으로 작성되나 이외에도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등 가용한 글로벌 조사 결과를 활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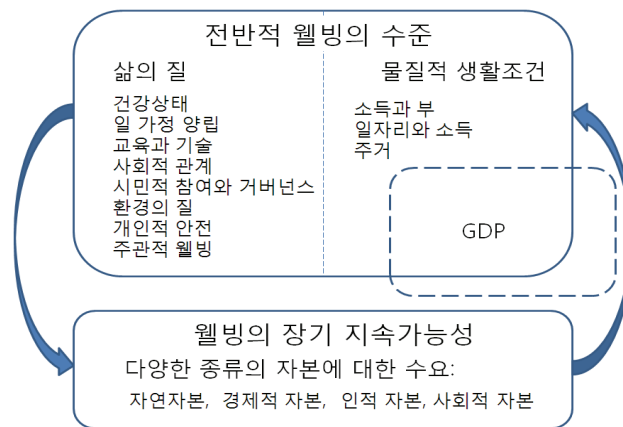
2) 주제 및 내용

세계 행복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본 보고서도 각국의 행복 현황과 각 판(issue)의 주제와 관련된 행복 조사 결과를 제공 및 논의하고 있다. 다만 OECD 국가 및 파트너국에 대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며 행복 순위는 제공하지 않으며 각 판에 포함되는 파트너국은 다소 변동이 있다. BLI에서는 종합지수를 계산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방문한 개개인이 가중치를 스스로 부여하여, 즉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어 개인별 종합 값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38개국 중에서 한국은 29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2011년 보고서는 OECD의 11개 웰빙 지표의 설명 및 측정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물질적 삶의 조건(Material Living Conditions), 삶의 질(Quality of Life), 안녕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of Well-being)의 세 차원을 고려하여 웰빙 측정 지표를 제안하였다. 2013년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웰빙에 미치는 영향, 웰빙에서의 성별 격차, 직장에서의 웰빙,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지속 가능

성의 주제를 다루었다. 2015년 보고서는 아동의 웰빙, 웰빙에서 자원봉사의 역할, 지역 수준에서의 웰빙 측정의 주제를 다루었다. 2017년 보고서는 웰빙의 불평등, 이민자들의 웰빙 경험, 웰빙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해 다루었다.

BLI는 사회의 불평등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며, 향후 개선 방향으로 인구의 특정 집단(남성 대 여성, 낮은 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웰빙 성과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불평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그림 3-6] OECD BLI의 개념적 프레임

[표 3-10] OECD How's Life 영역 및 지표

영역	지표
주택	사람별 방수, 기초 설비를 결여한 가구들
소득	가구 가처분 소득, 가구 금융재산
일자리	고용율, 장기실업률
공동체	지원 네트워크의 질
교육	교육 성취, 학생들의 독서능력
환경	대기오염
거버넌스	투표율, 법제정 시 자문
건강	기대 수명, 자기보고식 건강 수준
생활만족도	생활 만족도
안전	살인율, 강도 피해
일-생활 균형	장시간 노동자 비율, 자녀 가진 여성의 고용율, 여가 및 개인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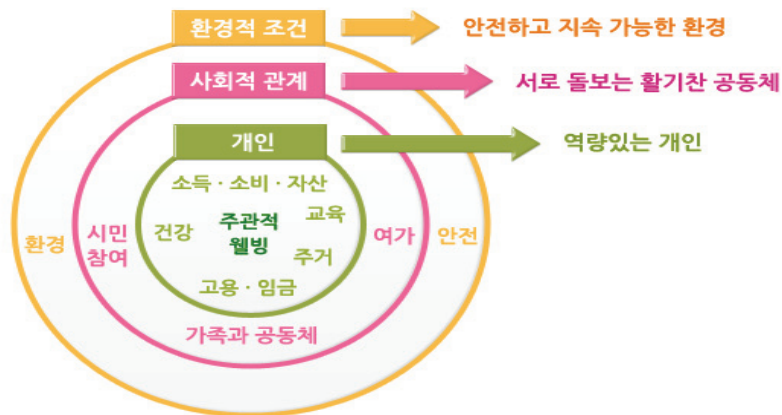
제2절 국내외 행복 측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행복 측정 조사: 주관적 웰빙

2013년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주관적 웰빙’ 지표를 통해 국내에도 국가 주도의 연 단위 행복 측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주관적 웰빙’ 지표는 한국 행정 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국민 삶의 질 지표 중 하나로,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가구원 7,500명 대상으로 2013년부터 1년 단위로 측정되고 있다. 국민 삶의 질 지표의 11개 영역 중의 한 하위 영역인 ‘주관적 웰빙’은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영역으로,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경험 등으로 구성된다[표 3-10].

본 측정 조사의 도입 시점부터 다양한 국가 실태 조사에 응답자의 주관적 안녕감 응답 문항이 새롭게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본 지표에서는 ‘주관적 웰빙’을 국민 삶의 질 지표를 구성하는 나머지 10개 영역(예. 주거, 환경, 여가, 안전, 시민 참여 등등)의 객관적 지표들이 포섭하지 못하는 주관적 삶의 측면을 담은 일종의 ‘보완적 측정치’로 간주하는 경향이 크다[그림 3-7].



[그림 3-7] 국민 삶의 질 지표 기본 틀

[표 3-11]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주관적 웰빙(주관적 안녕감) 측정 항목 및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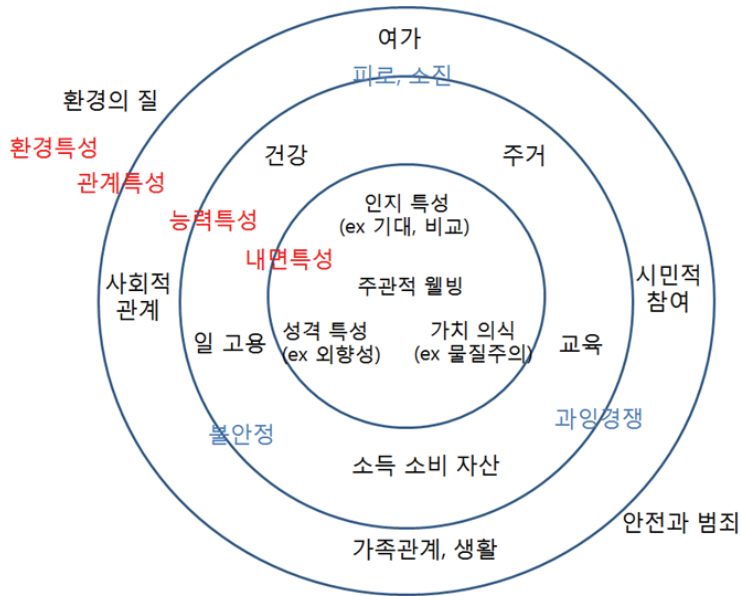
출처	측정 항목 및 문항
1. 삶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0~10; 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보통, 10=매우 만족한다)
2. 긍정 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0~10; 0=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5=보통, 10=매우 행복했다)
3. 부정 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0~10; 0=전혀 근심/걱정하지 않았다, 5=보통, 10=매우 근심/걱정 했다)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십니까? (0~10; 0=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5=보통, 10=매우 우울 했다)

국회미래연구원(2018)에서 삶의 질 조사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캐나다 웰빙 지표 혹은 한국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제시된 것과 유사한 만다라 형태의 프레임틀을 활용하여 측정 항목들을 체계화하였다(그림 3-8).

이 프레임에서 내부로부터 외부로 갈수록 내면적·주관적 영역에서 외부적·환경적 영역으로 바뀌게 되어 크게 네 수준에서 내면 특성, 능력 특성, 관계 특성, 환경 특성으로 나누어 측정 항목들을 검토 가능하도록 하였다.

내면 특성의 경우 삶의 질 측정에서 주관적 접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최근 연구 결과들을 반영하여 응답자들의 주관적 웰빙과 함께 내면적 특성으로서 인지적 특성, 성격적 특성, 가치의식적 특성으로 나누어 측정하고자 하였다. 능력 특성의 경우 센(Sen)의 능력 중심 접근과 그에 기반한 HDI 수치처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능력의 정도를 측정하며, 건강, 교육, 일과 고용, 주거, 소득 소비와 자산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관계 특성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의 측면으로서 시간 활용과 관련된 여가, 가족 관계 및 생활, 사회적 관계와 시민적 참여로 구성되었다. 환경 특성은 개인이 생활하는 주변 환경의 특성으로서 대기, 토양, 수질, 기후 등 환경의 질과 함께 안전과 범죄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이론적인 틀 또는 개념화 작업이 없이 기존 삶의 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나열하는 식에 그치고 있어서 엄밀한 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나 자료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 3-8] 국회미래연구원(2018) 삶의 질 측정 프레임

2 행복 측정을 포함한 국내 패널 조사

2013년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주관적 웰빙’ 부문을 통해 본격적인 행복 측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기존 패널 조사들에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 문항이 단문항으로 도입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후 특정 집단에 대한 실태 조사들을 중심으로 행복의 핵심 요소인 삶의 만족도와 긍정 정서, 부정 정서 경험을 모두 측정하는 패널 조사들이 등장하였다(예. 보건복지부의 「아동 종합 실태 조사」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조합 실태 조사」).

행복 측정의 기존 패널 조사 도입은 장기적으로 관심 집단의 행복 수준의 변화를 추적함과 동시에 다른 측정 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관심 집단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장점이 있다. 아직 많은 기존 패널 조사들은 삶의 만족 수준이나 정서적인 행복감 중 하나만 측정하는 사례가 많고, 대부분 조사 특성이나 집단에 맞는 영역별 만족도(예. 가정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등)에 주목하고 전반적인 행복은 측정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이다. 현재 국내에서 행복 측정을 포함하는 국가 단위 패널 조사는 [표 3-12]에 기술했다.

[표 3-12] 국내 행복 측정 현황

지표명	출처	측정 항목 및 문항	측정 규모 및 시행연도
아동과 부모의 행복*	보건 복지부, 「아동종합 실태조사」	1. 아동 - 주관적 삶의 질: 삶에 대한 만족도, 현재 삶의 수준 - 행복감, 우울감, 스트레스 2. 부모: - 삶에 대한 행복도 및 만족도, 우울	전국 거주 만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4,000가구/ 2013년 측정 (5년 단위)
청소년 주관적 안녕감	여성 가족부, 「청소년 종합실태 조사」	1. 긍정 정서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0~10; 0=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5=보통, 10=매우 행복했다) 2. 부정 정서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였습니다습니까? (0~10; 0=전혀 하지 않았다, 5=보통, 10=매우 많이 했다)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했습니까? (0~10; 0=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5=보통, 10=매우 우울했다) 3. 삶의 만족도 요즘 자신의 삶(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0~10; 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보통, 10=매우 만족한다)	전국 5,078가구 청소년(9~24세) 7,676명, 주 양육자 5,078명/ 2017년 측정 (5년 단위)
행복 수준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여가 활동조사」	<행복 수준> 귀하께서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0; 1=매우 불행, 10=매우 행복)	전국 17개 시,도의 15세 이상의 가구원 10,000명/ 2012, 2014, 2016년 측정 (2년 단위)
가구 구성원의 생활 만족도*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한국복지 패널조사」	<가구 구성원의 전반적 생활 만족도> (1~5; 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차상위빈곤패널 조사와 복지패널 조사 1차 조사 3800가구로부터 7000가구를 표본추출/ 2015~2017년 (1년 단위)

지표명	출처	측정 항목 및 문항	측정 규모 및 시행연도
삶에 대한 만족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의식' 항목	<p><삶에 대한 만족도> 귀하는 평소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행~행복의 1~10의 수직선 제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함)</p>	표본가구원: 약 27,000명 (만 10세 이상)/ 2014년 측정 (5년 단위)
현재 행복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 종단조사 (패널)」	<p><삶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으로 현재의 생활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0~10; 0=매우 불행하다, 10=매우 행복하다)</p>	150개 중학교 6908명 학생 (2005년 중1학년 시 표집된 인원)/ 2016년 측정 (2년 단위)
주관적 만족감 (국가발전 지표)	통계청, 「사회조사」 '사회참여' 항목	<p><주관적 만족감>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5; 1=매우 만족한다, 5=매우 불만족한다)</p>	약 25,842가구 만 13세 이상 가구원/ 2017년 측정

*원문항 비공개

제3절

행복 측정의 국제적 표준: OECD 주관적 안녕감 측정 가이드라인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개괄

2013년, OECD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갤럽세계조사(Gallup World Poll) 등 다수의 국제기구 및 정부 기관에서 진행되는 행복 측정 방안을 비교 및 분석하여 ‘OECD 주관적 안녕감 측정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이하 OECD 가이드라인)’을 출판하였다. OECD 가이드라인의 등장은 국가 단위 행복 측정의 중요성이 물질적 부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존 사회 지표가 보여주지 못하는 행복 측정치의 정책적 효용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복에 대한 축적된 학술 자료들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 혹은 국가 단위 측정을 총망라하여 행복 측정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처음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OECD 가이드라인은 1) 주관적 안녕감 측정 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정보, 2) 주관적 안녕감 관련 설문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주요 방법론적 고려 사항, 3) 주관적 안녕감 측정 모범 사례, 4) 주관적 안녕감 측정치의 보고 및 분석에 대한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주요 권고 사항

가. 주관적 안녕감 측정 도구의 타당성

주관적 안녕감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자료 수집과 분석에서의 방법론적 특성들에 대한 학술적 근거들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다(Smith, 2013). 주관적 안녕감 측정 도구의 질적 측면을 판단하는 주요 쟁점은 적절성, 신뢰도, 타당도(OECD, 2013)로서, 적

절성(relevance)은 잠재적으로 다양한 대상에게 다양한 용도로 이용 가능한가, 신뢰도(reliability)는 측정 도구가 일관적인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는가, 타당도(validity)는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실제로 얼마나 포착해내었는가를 측정한다.

나. 주관적 안녕감 측정 도구의 방법론적 고려 사항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은 측정 도구를 제시하는 방식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편향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양질의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모든 설문 도구 및 회기에 대해 일관적인 측정 접근을 권고한다. 설문 설계 시 문항의 단어 선택이 주관적 안녕감 측정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효과적인 번역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 경험한 정서에 대해 정확한 측정치를 얻기 위해서는, 준거 기간의 길이를 24시간 혹은 그 이내로 설정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삶의 만족감, 정서적 안녕감, 유데모니아 안녕감 등의 측정 도구를 제시할 시에는 적당한 응답 형태, 문항 순서, 설문 형식, 설문 시행 시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 주관적 안녕감 측정 시 고려 사항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할 때에는 관련 공변인과 분석 변인을 함께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예. 인구통계학적 변인, 경제적 변인, 심리적 측정치 등). 조사의 목적에 따라 표적 집단의 나이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만 1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표본 추출 방식은 대표성을 갖춘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사는 최대한 모든 요일에 균형 있게 진행하여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통계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설문의 진행 방식은 대면 조사가 가장 이상적이며, 전화 조사와 자기보고 조사를 활용할 시 진행 방식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주관적 안녕감 관련 문항은 설문의 초반에 배치해야 한다. 질문의 주제를 구분하는 서문을 활용하고 질문의 배치는 응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효과의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주관적 안녕감 측정 결과 분석 시 고려 사항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한 후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활용된 측정치들을 전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중심화 경향을 보고할 시에는 평균, 상위 역치, 하위 역치를 함께 보고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분포를 요약하고자 할 때에는 상·하위 10퍼센트 간의 차이 혹은 상·하위 25퍼센트 간의 차이를 보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OECD 가이드라인은 주관적 안녕감 측정치의 기술통계 분석과 해석 관련 고려 사항들, 주관적 안녕감의 동인을 분석하는 방법, 주관적 안녕감 측정치를 활용하여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

한국인의 행복 측정 조사 설계

제1절 조사 목적 및 개요

제2절 조사 설계

제3절 조사 항목

제1절 조사 목적 및 개요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민의 행복에 대한 관심과 제고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국민의 행복 추적이 필요하다. 행복 측정치가 국민 개인의 행복을 추적하는 자료로 기능할 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 단위의 변영 지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수치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높은 경제 사회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행복 보고에서 공통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는 한국인의 행복에 대해 객관적 사회 지표와의 연관성을 넘어선 체계적으로 계획된 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국가 주도의 행복 측정이 최근 시작되었으나, 대부분의 기존의 행복 측정 지표들은 국제 비교가 가능한 표준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측정 방식도 삶의 만족도 단일 문항인 경우가 많으며, 정서 경험과 기타 행복 관련 변인(예, 사회적 경험)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전반적 행복 수준과 특정 집단별 행복 수준, 그 변화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이 행복 수치에 기여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총체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검증된 행복 조사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인의 행복 측정 조사는 국민이 느끼는 행복 수준을 OECD 주관적 안녕감 측정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국제 비교 가능한 형태로 측정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조사들에서 단문항으로 측정했던 문항들을 주관적 안녕감의 핵심 3요인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각 하위 요인을 모두 측정하며,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심리적 측정(psychological assessment) 원리에 맞게 체계적으로 반복 측정하도록 구성한다.

더불어 국민의 행복 수준 측정뿐 아니라 행복 수준을 다양한 사회심리적 변인들과의 연관성 상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통상적으로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고 특정 하위 집단을 고려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조사 설계2)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조사 모집단은 대부분의 조사에서는 전국 일반 국민 19세 이상 성인을 모집단으로 하여 조사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의 추세를 고려할 때 최저 연령 기준뿐 아니라 최고 연령 기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조사 모집단 설정에서 최저 및 최고 연령 기준에 대한 고민은 아동의 행복과 노인 행복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필요가 높아지는 현실과 연결된다. 따라서 OECD에서는 최저 연령을 15세로 설정하는 것을 권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15~19세 연령 대부분에 대한 조사가 학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 조사 방식인 가구 방문 조사와 병행이 쉽지 않다는 점과 아동에 대한 주관적 안녕감 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가구소득, 지역별로 세분화된 분석이 가능한 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전국 5,000~10,000가구의 표집이 필요하다. 조사 표본 규모는 조사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예산 규모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가구 조사의 경우 조사 확률에 따라 목표 표본 수가 달라질 것이므로 조사 실시기관의 대략적 조사 확률에 맞춰 7,000~15,000가구의 표본이 확보되어야 실제 5,000~10,000가구의 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표본추출방법은 다단계층화 확률비례(계통) 추출을 활용하고 가구 방문 면접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층화변수는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된 중요한 배경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층화 과정을 거쳐 조사구 표집 후, 조사구 내에서 계통추출을 통해 최종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선정된 조사 가구 내에서 대표자 1인에 대한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원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2) 조사 설계에 대한 보다 확정적인 내용은 후속 연구를 통해 통계 개발원과 및 전문조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조사에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개별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자료 수집을 진행. 실제 조사과정에서 1인 가구, 취약 지역 거주 가구 등 상대적으로 삶의 질 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한 집단에 대한 응답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심리적 상태에 대한 조사는 실태 조사처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패널 조사 등을 통해 추적이 이루어질 필요가 적은 반면, 횡단면 조사의 비교 가능성이 매우 중요해지므로 조사 문항으로서 측정 도구 혹은 척도에 대한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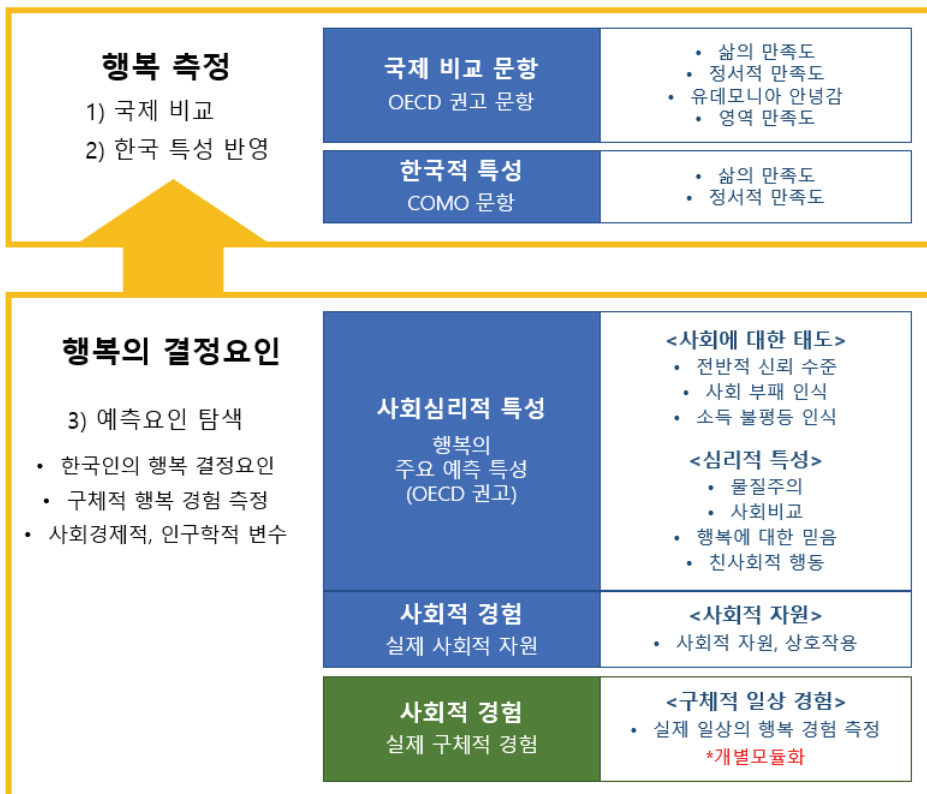
조사 주기는 비록 주관적 안녕감이 개인 수준과 국민 전체 평균적으로는 빠르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한국처럼 세대별, 성별 격차가 상당하고 특정 집단에서는 주목할 변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중시한다면 매년 주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조사에서 주관적 안녕감을 여러 삶의 영역에서의 현실적 변화 및 가치 변화와 연결하기 위해 모듈화한 설문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면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조사 항목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한국인의 행복 측정을 위한 프레임은 본 조사의 목적인 1) 행복 측정과 2) 행복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두 개의 문항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4-1].

최종 문항의 그룹별 세부 측정 요인과 문항 출처는 [표 4-2]와 [표 4-3]에 제시되어 있으며, 구체적 최종 문항은 마지막에 제시하도록 한다.



[그림 4-1] 「한국인의 행복 측정」 측정 프레임

행복 측정 영역은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인 국제 비교가 가능하면서도 한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한다. 우선 국제 비교가 가능한 문항을 사용하기 위해,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제적 표준을 정리해놓은 OECD 주관적 안녕감 측정 가이드라인(OECD, 2013)의 권고에 따라 문항의 기본 틀을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의 핵심 구성 요인인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경험(정서적 만족도)을 측정하고, 유데모니아 안녕감(예. 삶의 의미 혹은 가치, 자율감), 영역별 만족감(예. 주거 환경, 직장) 관련 문항을 추가한다.

국제 표준화 문항을 바탕으로, 한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단축형 행복 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같이 측정한다. 본 척도는 이미 만 19세 이상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가진 한국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타당화 작업을 마쳤으며, 충분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확보한 검증된 문항이다(구재선, 서은국, 2011; 서은국, 구재선, 2011)([그림4-2]). 행복 측정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기본적으로 심리적 측정 원리를 기반으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같은 영역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과제는 체계적인 한국인의 행복 측정과 더불어 낮은 행복감의 주요 관련 원인을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추가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행복 결정요인 영역은 행복 측정 영역에서 도출된 행복 측정치가 사회심리적 요인과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문항들로, 기존 행복 측정 프레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탐색적 차별성을 가진다.

기존의 행복 측정 조사들의 측정 프레임들은 대부분 객관적 사회 지표들(예. 수입, 환경, 주거 등등)을 바탕으로 구성해왔으나, 실제 이 사회 지표들의 행복 판단에 대한 예측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학술적 근거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런 사회 지표들의 행복 예측력이 가장 떨어지는 국가 중 하나로, 국제적으로 최상위권의 객관적 삶의 조건들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행복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대표적 국가이다. 따라서 본 측정 프레임의 행복 결정요인 영역은 한국인의 행복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행복 경험과 가장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된 '사회심리적 특성'들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였다.

부록A: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

다음은 삶의 만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개인적 측면(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 관계적 측면(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 집단적 측면(내가 속한 집단 - 직장, 지역사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삶의 각 측면에서 귀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귀하는 그러한 삶의 각 측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보기 중에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_____ 1)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에 대해서 만족한다.
 _____ 2) 나는 내 삶의 관계적 측면에 대해서 만족한다.
 _____ 3)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만족한다.

다음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가 경험한 감정을 묻는 질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제시되는 감정들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전혀 느끼지 않았다(1점)'에서부터 '항상 느꼈다(7점)'까지의 보기 중에서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전혀 느끼지 않았다			항상 느꼈다
1	2	3	4
5	6	7	

_____ 4) 즐거운 _____ 6) 편안한 _____ 8) 부정적인
 _____ 5) 행복한 _____ 7) 짜증나는 _____ 9) 무기력한

[그림 4-2] 단축형 행복 척도

사회심리적 특성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사회에 대한 태도' 영역(예. 전반적 신뢰)과 개인의 일상의 행복 경험과 관련된 주관적 믿음과 습성을 반영하는 '심리적 특성' 영역(예. 사회 비교)으로 구성되었다. 더불어 실제 사회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과 질을 살펴보고, 실제 행복 경험 형태를 측정하도록 문항을 구성한다. 특히 실제 행복 경험 형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경험의 왜곡이 가장 적은 방법으로 알려진 일상 재구성법(daily reconstruction Method; Kahneman et al., 2004)을 도입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각 개인의 사회적 교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실제 경험한 활동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하는지, 어떤 형태로 어떤 사람과 이루어지는지, 어떤 정서를 경험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문항 모듈은 측정의 편의를 위해 각 문항을 항목별로 우선 순위에 따라 핵심(core) 문항과 추가 선택(supplement) 문항으로 분류하고, 측정 시간과 대상에 맞게 조정하도록 구성하였다. 핵심(core) 문항은 행복 측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항들로, 국제 비교 목적을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 선택(supplement) 문항은 상대적으로 측정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측정 가능할 경우 측정 자료의 신뢰도를 더해주거나 더 자세한 분석이 가능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 재구성법(DRM)의 경우, 기본적으로 축약형을 제안하였으나 측정 상황에 따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측정 대상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문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DRM 모듈'로 분리하여, 측정 상황에 맞춰 기본 문항들과 함께 측정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핵심, 추가 선택 문항의 조합과 DRM 모듈 선택 여부에 따라, 총 문항은 최소 53개에서 최대 87개까지 변동이 가능하다(구체적인 세부 문항은 표 14 참고).

제시된 최종 문항들은 인지 실험 절차를 통해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문항 이해도를 확인하여 핵심 문항과 추가 선택 문항을 확정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DRM 모듈의 경우,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응답자의 일상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문항 제시 방안을 확정하는 최종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

핵심 문항과 추가 선택 문항의 조합과 DRM 모듈 선택 여부에 따른 소요 시간과 자료 수집 시 고려할 세부 유의 사항 등은 최종 확정 문항의 추후 예비 설문(pilot test)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실제 측정 시 모듈 구성 선택에 참고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

[표 4-1] 「한국인의 행복 측정」 문항 구성

영역	변수명	문항 분류별 문항 수	
		핵심	추가 선택
I. 행복 측정			
국제 비교 문항 + 한국적 특성 문항		35	10
	① 핵심 문항	5	
	② 삶의 만족도	2	7
	③ 정서	12	
	④ 유데모니아 안녕감	5	3
	⑤ 영역 만족도	11	
II. 행복 결정요인			
사회심리적 특성 + 사회적 경험(실제 사회적 자원)		12	12
1) 사회심리적 특성			
	① 전반적 신뢰	1	7
	② 물질주의	1	
	③ 행복에 대한 믿음	1	1
	④ 성격: 외향성/신경증	2	
	⑤ 사회 비교	1	
	⑥ 사회 부패 인식		2
	⑦ 소득 불평등 인식		1
	⑧ 친사회적 행동		1
2) 사회적 자원			
	① 친밀한 관계 수	1	
	② 사회적 시간 비율	2	
	③ 사회적 시간 중, 친밀한 관계 시간	2	
	④ 사회적 연결(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1	
III. 기타 변인			
인구사회학적 변인		7	
성별, 연령(생년월일), 혼인 상태, 자녀 유무(자녀 수), 소득 등		6	
IV. 개별 모듈: 일상 재구성법(DRM)			
사회적 경험(실제 구체적 경험)		12	
하루 특정 시간에 대한 상세한 보고(오전, 오후, 저녁 중 택1)		12	
총 문항		66	22
		88	

[표 4-2] 「한국인의 행복 측정」 문항별 출처

영역	변수명	세부 문항분류	출처
I. 행복 측정			
① 핵심 문항		핵심	OECD(2013)
② 삶의 만족도		핵심	OECD(2013)
		추가 선택	OECD(2013), Diener 등(1985)
③ 정서		핵심	OECD(2013), Diener 등(2010) 서은국, 구재선(2011)
④ 유테모니아 안녕감		핵심	OECD(2013), Diener 등(2010) European Social Survey(ESS)
		추가 선택	OECD(2013), Diener 등(2010) European Social Survey(ESS)
⑤ 영역 만족도		핵심	OECD(2013), Diener 등(2010) 서은국, 구재선(2011)
II. 행복 결정요인			* OECD How's Life (2017) 인용
1) 사회심리적 특성			
① 전반적 신뢰		핵심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EU-SILC)
		추가 선택	World Values Survey(WVS)
② 물질주의		핵심	World Values Survey(WVS)
③ 행복에 대한 믿음		핵심	구자영, 서은국(2007) 참고
		추가 선택	구자영, 서은국(2007) 참고
④ 성격: 외향성/신경증		핵심	Costa and McCrea(1992) World Values Survey(WVS)
⑤ 사회 비교		핵심	Gibbons and Buunk(1999)
⑥ 사회 부패 인식		추가 선택	Gallup World Poll(GWP)
⑦ 소득 불평등 인식		추가 선택	Gallup Poll Social Series(GPSS)
⑧ 친사회적 행동		추가 선택	Gallup World Poll(GWP)
2) 사회적 자원			
① 친밀한 관계 수		핵심	Gallup World Poll(GWP)
② 사회적 시간 비율		핵심	World Values Survey(WVS) 참고
③ 사회적 시간 중, 친밀한 관계 시간		핵심	World Values Survey(WVS) 참고
④ 사회적 연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핵심	Gallup World Poll(GWP)
III. 기타 변인 (인구 사회학적 변인)			* 기본 변인으로 구성
IV. 개별 모듈: 일상 재구성법(DRM)			
하루 특정 시간에 대한 상세한 보고 (오전, 오후, 저녁 중 택1)		핵심 (모듈 선택 시)	Kahneman 등(2004), Miret 등(2012)

[표 4-3] 「한국인의 행복 측정」 문항 모듈 구성 예시

	세부 문항 분류	항목 별 문항 수				총 문항 수
		행복 측정	행복 결정 요인	기타 변인	DRM 모듈	
I) 핵심 문항	핵심	35	12	7		54
II) 핵심 문항 + 추가 선택 문항	핵심	35	12	7		76
	추가 선택	10	12	0		
III) 핵심 문항 + DRM 모듈 추가	핵심	35	12	7	12	66
IV) 핵심 문항 + 추가 선택 문항 + DRM 모듈 추가	핵심	35	12	7	12	88
	추가 선택	10	12	0		

가. 행복 측정

1) 핵심 문항: 5문항

■ 다음은 귀하가 느끼는 만족감을 주어진 0~10점 척도로 응답하는 문항입니다.

◎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최근 귀하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다음은 귀하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 얼마나 가치 있다고 느끼는지 0~10점 척도로 응답하는 문항입니다. 0점은 귀하의 삶 속에서 하는 일들이 “전혀 가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10점은 “매우 가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귀하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느끼십니까?



■ 다음은 귀하가 어제 느낀 감정을 0~10점 척도로 응답하는 문항들입니다. 0점은 당신이 어제 특정한 감정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를 의미하고 10점은 “항상 경험했다”를 의미합니다.

◎ 귀하는 어제 ‘행복’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 귀하는 어제 ‘근심’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 귀하는 어제 ‘우울’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2) 삶의 만족도

2-1) 핵심 문항: 2 문항

■ 맨 아래에는 0점부터 맨 꼭대기에는 10점까지 점수가 매겨진 사다리를 상상해보십시오. 사다리의 맨 꼭대기는 당신이 살 수 있는 최상의 삶을 뜻하고, 맨 아래는 최악의 삶을 나타냅니다.

◎ 귀하는 현재 자신이 사다리의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숫자에 표시해 주십시오.



■ 다음은 귀하가 느끼는 행복을 0~10점 척도로 응답하는 문항입니다.

◎ 삶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귀하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2) 추가 선택 문항: 7 문항

■ 다음은 귀하가 느끼는 만족감을 0~10점 척도로 응답하는 문항입니다.

◎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5년 전 귀하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셨습니다?



◎ 최대한 추측건대, 전반적으로 5년 후 귀하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아래의 문항들은 귀하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다섯 가지의 문항들입니다. 아래 1~7점 척도를 활용하여, 귀하가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조금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조금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나의 삶의 조건들은 매우 훌륭하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조금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조금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조금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조금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했던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조금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조금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만약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 해도,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조금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조금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정서

3-1) 핵심 문항: 12 문항

■ 다음은 귀하가 어제 느낀 감정을 0~10점 척도로 응답하는 문항들입니다. 0 점은 당신이 어제 특정한 감정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를 의미하고 10점은 “항상 경험했다”를 의미합니다.

◎ 귀하는 어제 ‘즐거움’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 귀하는 어제 ‘차분함’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 귀하는 어제 ‘슬픔’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 귀하는 어제 ‘분노’를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 귀하는 어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 귀하는 어제 '피곤'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 항상 경험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 귀하는 어제 '기쁨'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 항상 경험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 귀하는 어제 '편안함'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 항상 경험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 귀하는 어제 '짜증'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 항상 경험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 귀하는 어제 '부정적인 감정'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 항상 경험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 귀하는 어제 '무기력함'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 항상 경험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 귀하는 어제 미소 짓거나 웃은 적이 많습니까?

전혀 없었다  매우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4) 유데모니아 안녕감

4-1) 핵심 문항: 5문항

■ 이제 귀하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아래 0~10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 전반적으로, 나는 인생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의미 있다고 느낀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 대부분의 경우, 나는 내가 하는 일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롭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 다음은 귀하가 어제 동안 느꼈을 감정의 일부입니다. 0~10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0은 어제 동안 “전혀 느끼지 않았다”를, 10은 어제 “항상 느꼈다”를 의미합니다.

◎ 귀하는 어제 얼마나 '활력'이 넘쳤습니까?



◎ 귀하는 어제 얼마나 '외로움'을 느꼈습니까?



4-2) 추가 선택 문항: 3문항

■ 이제 귀하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0~10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 전반적으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



◎ 나는 언제나 나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다.



◎ 내 삶에서 무언가 잘못되면, 나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데 오래 걸린다.



5) 영역 만족도

5-1) 핵심 문항: 11문항

■ 다음은 귀하의 삶 중 특정 영역에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0~10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 귀하는 본인의 생활 수준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귀하는 본인의 건강 수준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귀하는 본인 삶에서의 성취 수준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귀하는 본인이 느끼는 안전함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귀하는 본인의 미래 안정성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귀하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귀하는 본인의 동네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직업을 가진 응답자에게 한정된 질문:

◎ 귀하는 본인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다음은 삶의 만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개인적 측면(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 관계적 측면(주위 사람들과 관계 등), 집단적 측면(내가 속한 집단-직장, 지역사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삶의 각 측면에서 귀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귀하는 그러한 삶의 각 측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 귀하는 자신의 삶의 개인적 측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귀하는 자신의 삶의 관계적 측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귀하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나. 사회심리적 변인 측정

1) 사회심리적 변인

1-1) 핵심 문항: 6 문항

■ 다음은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장들과 주어진 척도들을 잘 읽어보고,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를 골라 주십시오.

◎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많은 돈과 비싼 물건을 소유하는 부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



◎ 행복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불행한 사람도 많아진다.



■ 다음은 귀하의 성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장들과 주어진 척도들을 잘 읽어보고,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를 골라 주십시오.

◎ 나는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다.



◎ 나는 쉽게 긴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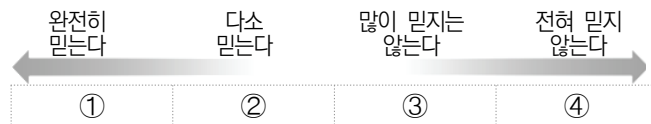
◎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항상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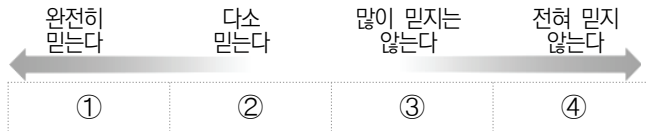
1-2) 추가 선택 문항: 12문항

■ 귀하가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을 얼마나 믿습니까? 귀하가 이 집단들의 사람들을 완전히 믿는지, 다소 믿는지, 많이 믿지는 않는지, 혹은 전혀 믿지 않는지 잘 나타내는 숫자를 골라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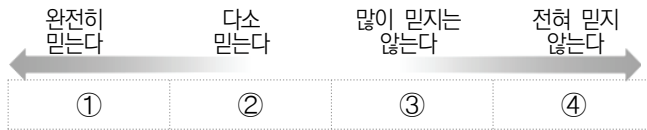
◎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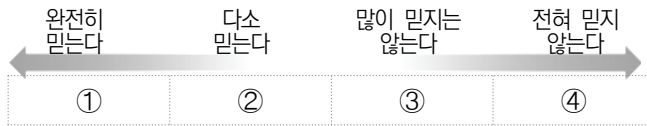
◎ 이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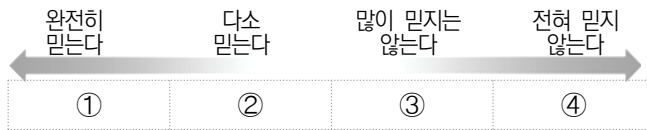
◎ 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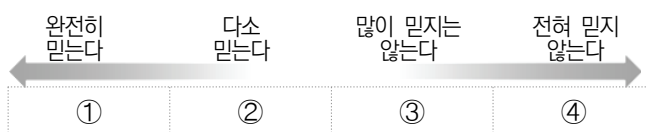
◎ 처음 만난 사람



◎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



■ 다음은 귀하가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장들과 주어진 척도들을 잘 읽어보고,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를 골라 주십시오.

◎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만 있다면 당신을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정하게 대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는 국가 정부 전반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는 한국 기업 전반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는 한국 내에서의 근로를 통해 앞서갈 수 있는 기회 혹은 소득과 부가 분배되는 방식에 만족하십니까, 혹은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 귀하는 지난 달에 본인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다른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다음은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장들과 주어진 척도들을 잘 읽어보고,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를 골라 주십시오.

◎ 행복이란 내가 느끼는 것보다 남의 인정이 중요하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다. 사회적 경험 측정

1) 사회적 자원

1-1) 핵심 문항: 6 문항

■ 다음은 당신의 일상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각 질문을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 평소 자주 어울리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명

◎ 하루 중 깨어 있는 시간을 100%라고 하면, 1) 혼자 있는 시간과 2)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총합 = 100%)

1) 혼자 있는 시간: ()%

2)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 ()%

◎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 중, 1) 내가 좋아서 만나는 관계(예. 친구)와 2) 필요나 의무로 인한 관계(예. 인맥) 각각에 들이는 시간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총합 = 100%)

1) 좋아서 만나는 관계: ()%

2) 필요나 의무로 인한 관계: ()%

◎ 귀하에게는 자신이 곤경에 처한 경우, 필요하면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라. 인구사회학적 변인

1) 인구사회학적 변인

1-1) 핵심 문항: 7 문항

◎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 귀하의 실제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 ① 양력 ② 음력

년 월

◎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

◎ 귀하는 누구와 함께 사십니까?(중복 응답)

- | | |
|--|--|
| <p>① 가구주</p> <p>② 배우자</p> <p>③ 미혼 자녀</p> <p>④ 기혼 자녀 및 그 배우자</p> <p>⑤ 손자·손녀 및 그 배우자</p> | <p>⑥ 부모(배우자 쪽 포함)</p> <p>⑦ 조부모(배우자 쪽 포함)</p> <p>⑧ 미혼 형제자매</p> <p>⑨ 기타 친·인척</p> <p>⑩ 기타 동거인</p> |
|--|--|

◎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소득은 집에서 돈을 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연 소득을 합하여 12로 나눈 월평균 금액을 말합니다(결혼 후 분가한 형제자매 제외).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소득 없음
- ② 100만 원 미만
- ③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 ④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 ⑤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 ⑥ 4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 ⑦ 500만 원 이상 ~ 600만 원 미만
- ⑧ 600만 원 이상 ~ 700만 원 미만
- ⑨ 700만 원 이상 ~ 800만 원 미만
- ⑩ 8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⑪ 9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미만
- ⑫ 1,000만 원 이상

◎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은 정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 ① 안 받았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4년제 미만)
- ⑤ 대학교(4년제 이상) ⑥ 대학원 석사 과정 ⑦ 대학원 박사 과정 ⑧ 모름

◎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관리자 ② 전문직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 노무 종사자 ⑩ 군인
- ⑪ 기타(적을 것 : _____)

마. DRM 모듈 (개별 모듈)

1) 일상 재구성법(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DRM)

- 단축형 DRM(Miret et al., 2012) 수정하여 이용
- 참가자들을 다음 세 그룹에 무선 할당하여 진행
 - Set A(오전): 어제 아침 기상 시간부터 정오 전까지 보고
 - Set B(오후): 어제 아침 정오부터 저녁 6시까지 보고
 - Set C(저녁): 어제 저녁 6시부터 취침 전까지 보고

1-1) 핵심 문항: 12 문항

지금부터는 귀하가 어제 하신 일들에 대해 여쭙보고자 합니다.		
A1	귀하가 어제 일어난 시간은 언제입니까?	시 분
A2	귀하가 어젯밤에 잠든 시간은 언제입니까?	시 분

귀하가 어제 [아침 기상 시간부터 정오 전/ 정오부터 저녁 6시/ 저녁 6시부터 취침 전]까지 하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아래 빈칸에 어떤 일이었는지 간단하게 묘사해 주십시오.

모두 작성하셨으면, 아래 질문들에 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금 간단히 작성하신 활동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A3	어제 [아침 기상 시간부터 정오 전/ 정오부터 저녁 6시/ 저녁 6시부터 취침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1개만 고르시오)		
	① 일하기	⑨ 자가용/버스/기차로 이동	⑰ 산책 외 여가 활동하기
	② 음식 준비하기	⑩ 휴식(차/커피 마시기 포함)	⑱ 몸단장 혹은 샤워하기
	③ 집안일 하기	⑪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기	⑲ 먹기
	④ 농사	⑫ 놀이(카드/게임 포함)	⑳ 종교 활동하기
	⑤ 아이 돌보기	⑬ 독서하기	㉑ 누군가를 돌보기
	⑥ 쇼핑하기	⑭ 라디오 청취하기	㉒ 애정 표현/성관계
	⑦ 걷기	⑮ TV 시청하기	㉓ 잠자기
	⑧ 자전거로 이동	⑯ 운동 혹은 산책하기	

A4	어제 [아침 기상 시간부터 정오 전/ 정오부터 저녁 6시/ 저녁 6시부터 취침 전]에 위의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상호작용했습니까?			
① 혼자 ② 혼자이지만, 전화/문자/채팅 등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 ③ 배우자 ④ 성인이 된 자녀(18세 이상) ⑤ 어린 자녀 혹은 손주 ⑥ 가족(배우자, 자녀, 손주 제외) ⑦ 친구 ⑧ 직장 동료 ⑨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				
이제 어제 [아침 기상 시간부터 정오 전/ 정오부터 저녁 6시/ 저녁 6시부터 취침 전]에 위의 활동을 하면서 느낀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의 문항들에 대해, “전혀 느끼지 않았다”, “약간 느꼈다”, “매우 많이 느꼈다” 중 하나로 대답해 주십시오.				
		전혀 느끼지 않았다	약간 느꼈다	매우 많이 느꼈다
A5	근심을 얼마나 느꼈습니까?	1	2	3
A6	바쁨을 얼마나 느꼈습니까?	1	2	3
A7	짜증 혹은 분노를 얼마나 느꼈습니까?	1	2	3
A8	우울을 얼마나 느꼈습니까?	1	2	3
A9	긴장 혹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꼈습니까?	1	2	3
A10	평온함 혹은 편안함을 얼마나 느꼈습니까?	1	2	3
A11	그 활동이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1	2	3

참고 문헌

1. 문헌 자료
2. 웹 사이트

참고 문헌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문헌 자료

- 구자영·서은국(2007), 「행복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믿음과 주관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pp. 1~19.
- 구재선·서은국(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pp. 143~166.
- _____ (2012), 「행복은 4년 후 학업성취를 예측한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2), pp. 35~50.
- _____ (2013), 「행복이 미래 수입과 직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2), pp. 17~36.
- 서은국, 구재선(2011), 「단축형 행복 척도 (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pp. 95~113.
- 신지은·최혜원·서은국·구재선(2013), 「행복한 청소년은 좋은 시민이 되는가? 긍정 정서와 친사회적 가치관 및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3), pp. 1~21.
- 한준(2018), 『한국 삶의 질 조사 기반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Abdallah, S. et al.(2012), *Happy Planet Index: 2012 Report. A Global Index of Sustainable Well-Being*, London: New Economics Foundation, p. 26.
- Abdallah, S. et al.(2009), *The (Un)Happy Planet Index 2.0*, London: New Economics Foundation.

- Aknin, L. B., Dunn, E. W., and Norton, M. I.(2012), “Happiness Runs in a Circular Motion: Evidence for a Positive Feedback Loop between Prosocial Spending and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2), pp. 347-355.
- Andrews, F. M., and Withey, S. B.(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Plenum Press.
- Baas, M., De Dreu, C. K., and Nijstad, B. A.(2008), “A Meta-Analysis of 25 Years of Mood-Creativity Research: Hedonic Tone, Activation, or Regulatory Focus?” *Psychological Bulletin*, 134(6), pp. 779-806.
- Billari, F. C.(2009), *The Happiness Commonality: Fertility Decisions in Low-Fertility Settings, How Generations and Gender Shape Demographic Change: Towards Policies Based on Better Knowledge*, New York: United Nations, pp. 7-31.
- Bjørnskov, C. (2003), “The Happy Few: Cross-Country Evidence o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Kyklos*, 56(1), pp. 3-16.
- Blanchflower, D. G., and Oswald, A. J.(2004), “Money, Sex and Happiness: An Empirical Study”,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06(3), pp. 393-415.
- Boehm, J. K., and Kubzansky, L. D.(2012), “The Heart's Content: The Association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ardiovascular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38(4), pp. 655-691.
- Boehm, J. K. et al.(2011), “Heart Health When Life is Satisfying: Evidence from the Whitehall II Cohort Study”, *European Heart Journal*, 32(21), pp. 2672-2677.
- Brethel-Haurwitz, K. M., and Marsh, A. A.(2014), “Geographical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Predict Extraordinary Altruism”, *Psychological Science*, 25(3), pp. 762-771.
- Danner, D. D., Snowdon, D. A., and Friesen, W. V.(2001), “Positive

- Emotions in Early Life and Longevity: Findings from the Nun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5), pp. 804-813.
- De Neve, J. E., and Oswald, A. J.(2012), “Estimating the Influence of Life Satisfaction and Positive Affect on Later Income Using Sibling Fixed Effect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9(49), pp. 19953-19958.
- Danner, D.(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pp. 542-575.
- _____(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pp. 34-43.
- _____(2006). “Guidelines for National Indicators of Subjective Well-being and I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 pp. 397-404.
- Diener, E. et al.(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pp. 71-75.
- Diener, E. et al.(2009), *Well-being for public polic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Diener, E., Oishi, S., and Lucas, R. E.(2015), “National accounts of subjective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70(3), pp. 234-242.
- Diener, E., and Ryan, K. (2009). Subjective well-being: A general overview. *South African Journal of Psychology*, 39(4), pp. 391-406.
- Diener, E., and Seligman, M. E.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1), pp. 81-84.
- Diener, E. et al.(2010), “Unhappiness In South Korea: Why It Is High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Proceedings of Annual Meetings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0*, pp. 1-23.
- _____(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pp. 276-302.

- Diener, E. et al.(2010), “New Well-Being Measures: Short Scales to Assess Flourishing and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7(2), pp. 143-156.
- Dolan, P., and White, M. P.(2007), “How Can Measures of Subjective Well-Being Be Used to Inform Public Polic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2(1), pp. 71-85.
- Epley, N., and Schroeder, J.(2014), “Mistakenly Seeking Solitud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3(5), pp. 1980-1999.
- Gallup(2017), *What Happiness Today Tells Us About the World Tomorrow*, <https://news.gallup.com/reports/220601/what-happiness-today-tells-us-about-the-world-tomorrow.aspx>.
- Gibbons, F. X., and Buunk, B. P.(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1), pp. 129-142.
- Graham, C., Chattopadhyay, S., and Picon, M.(2010), *The Easterlin and Other Paradoxes: Why Both Sides of the Debate May Be Correct*, In E. Diener, J. F. Helliwell, and D. Kahneman (Ed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ell-being.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pp. 247-288.
- Helliwell, J., Layard, R., and Sachs, J.(2016), *World Happiness Report 2016*,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_____(2017). *World Happiness Report 2017*,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_____(2019). *World Happiness Report 2019*,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Inglehart, R. et al.(2008), “Development, Freedom, and Rising Happiness: A global Perspective(1981-2007)”,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 Science*, 3(4), pp. 264-285.
- Kahneman, D. et al.(2004), “A Survey Method for Characterizing Daily Life Experience: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Science*, 306(5702), pp. 1776-1780.
- Keyes, C. L., Shmotkin, D., and Ryff, C. D.(2002), “Optimizing Well-Being: The Empirical Encounter of Two Tra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pp. 1007-1022.
- Krueger, R. F., Hicks, B. M., and McGue, M. (2001), “Altruism and Antisocial Behavior: Independent Tendencies, Unique Personality Correlates, Distinct Etiologies”, *Psychological Science*, 12(5), pp. 397-402.
- Lawless, N. M., and Lucas, R. E. (2011), “Predictors of Regional Well-Being: A County Level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1(3), pp. 341-357.
- Le Moglie, M., Mencarini, L., and Rapallini, C.(2015), “Is It Just a Matter of Personality? On the Role of Subjective Well-Being in Childbearing Behavior”,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117, pp. 453-475.
- Lucas, R. E. (2014), “Life Satisfaction of US Counties Predicts Population Growth”,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5(4), pp. 383-388.
- Luhmann, M. et al.(2013), “The Prospective Effect of Life Satisfaction on Life Event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4(1), pp. 39-45.
- Lyubomirsky, S., King, L., and Diener, E(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6), pp. 803-855.
- Miret, M., Caballero. et al.(2012), “Validation of a measure of subjective

- well-being: An abbreviated version of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PLoS One*, 7(8), e43887.
- Morcillo, F. M., and de Juan Díaz, R., M. Rojas (Ed.)(2016), “Happiness and social Capital: Evidence from Latin American Countries”, *Handbook of Happiness Research in Latin America*, Springer: Dordrecht, pp. 143-161.
- Ng, W., and Diener, E. (2014), “What Matters to the Rich and the Poor? Subjective Well-Being, Financial Satisfaction, and Postmaterialist Needs across the Worl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2), pp. 326-338.
- OECD(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191655-en>
- OECD(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ow_life-2017-en
- Oishi, S., and Diener, E.(2014), “Can and Should Happiness Be a Policy Goal?”, *Policy Insights from th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1), 정보, pp. 195-203.
- Oishi, S., and Schimmack, U.(2010), “Culture and Well-Being: A New Inquiry into the Psychological Wealth of Nation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5(4), pp. 463-471.
- Parr, N. (2010), “Satisfaction with Life as an Antecedent of Fertility: Partner+ Happiness= Children?”, *Demographic Research*, 22, pp. 635-662.
- Pressman, S. D., and Cohen, S.(2005), “Does Positive Affect Influence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31(6), pp. 925-971.
- Sarracino, F. (2012), “Money, Sociability and Happiness: Are Developed Countries Doomed to Social Erosion and Un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9(2), pp. 135-188.

- Stephoe, A., and Wardle, J. (2011), "Positive Affect Measured Using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and Survival in Older men and Wome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8(45), pp. 18244-18248.
- Stiglitz, J., Sen, A., and Fitoussi, J. P.(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French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Paris 정보.
- The Global Happiness Council(2018), *Global Happiness Policy Report 2018*,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Ward, G. (2015), "Is Happiness a Predictor of Election Results?", *CEP Discussion Paper Series*, CEPDP1343.
- Waterman, A. S., Schwartz, S. J., and Conti, R.(2008), "The Implications of Two Conceptions of Happiness (Hedonic Enjoyment and Eudaimonia) for the Understanding of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1), 정보, pp. 41-79.
- Zaninotto, P., Wardle, J., and Steptoe, A.(2016), "Sustained Enjoyment of Life and Mortality at Older Ages: Analysis of the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BMJ*, 355, i6267.

2 웹 사이트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

German government, Platform Industries 4.0,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of Germany,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9. 3. 20 접근, <https://www.plattform-i40.de/I40/Navigation/EN/Home/home.html>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9. 3. 20 접근,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sdgs>)

「한국인의 행복 측정」 기반 연구

인 쇄 2019년 12월 27일
발 행 2019년 12월 31일
발 행 인 박 진 (朴 進)
발 행 처 국회미래연구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2층 222호
전 화 02)786-2190
팩 스 02)786-3977
홈페이지 www.nafi.re.kr
인 쇄 처 유월애 (02-859-2278)

©2019 국회미래연구원

ISBN 979-11-90858-00-7 93300

「한국인의 행복 측정」 기반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2층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www.nafi.re.kr



9 791190 858007

ISBN 979-11-90858-00-7 93300

비매품/무료